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5월 10일)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청소년포교 지각변동 '탈학교화' 대비하라

학내 청소년단체 활동 제한, 불교계 대책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동안 학교 내 청소년활동을 통해 진행해 온 청소년 포교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계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업무 제외 방침으로 청소년단체의 '탈학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적인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서 제외하는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렸다. 올해부터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를 교사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이스카우트 같은 청소년 단체 활동에 학교가 손을 떼는 대신 해당단체나 지역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15개 청소년단체 중 불교계 단체로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있다.

청소년단체 참여 동기 사라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같은 불교계 청소년단체는 자체 활동과 함께 10년 넘게 학교를 기반에 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일선 사찰의 청소년법회와 함께 불교 청소년단체의 학내 교육활동을 통한 간접 포교는 청소년 불자 양성의 큰 힘이었다.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도 인력의 이탈이다. 학교 지도교사들의 청소년단체 참여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업무분장 제외 지침에 앞서 청소년단체 활동 시 지도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 가산점을 2021년에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활동의 대입 전형 이점도 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참여 동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동아리 기록을 학년 당 1개만 쓰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만 적을 수 있다.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크게 교육부 교육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보면 청소년 정책은 이제 학내 활동에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불교계가 그동안 학교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포교전략을 꾸려왔다면 이제 평생교육에 맞는 포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쉼터 운영 등 대안 제시

탈학교화로 인한 불교 청소년단체는 어떤 청소년 포교를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꼽히는 방안은 불교계의 청소년쉼터 운영이다.

이대성 스토리평생교육원장은 불교계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사례로 은평구에 위치한 '꿈꾸는 다락방'을 꼽았다. '꿈꾸는 다락방'은 음악 교육과 함께 밴드 등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대성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서는 청소년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생활 포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소년 쉼터와 교육센터나 대안학교 등에 불교계의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곤 사무국장은 "사찰의 현실을 볼 때 단기 위탁형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서울시, 청소년단체 활동
학교 업무서 제외 지침
파라미타 · 청교련 '직격타'

평생교육으로 정책 변화
포교 방안 재수립 불가피
"불교계, 대안학교 관심을"

서울에만 40여 단기위탁형 대안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최근 나란타대안학교가 폐지되며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전무하다. 사찰 유휴공간과 퇴직 불자교원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참여 동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꾸준히 개발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활동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 자원봉사가 있다. 아직 불교계에서 사찰단위 참여는 적은 상황"이라며 "특히 청소년자원봉사제는 온라인상에서 봉사활동 정보 검색과 확인까지 가능해 교육부와도 연계되는 만큼 청소년법회 등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호국 군승 원력을 기리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서울 현충원에서 순직군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한 재경지역 군법사 10여명이 참여해 묘역에 헌화하고 불교의식을 봉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은 "우리 군승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다. 순직한 선배 군승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 발전과 군포교 원력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6월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 선정

국가보훈처 "위대한 저항 시인이자 승려인 독립투사"



국가보훈처가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만해 한용운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한용운 선생을 2019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발간해 불교 혁신운동을 일으킨 주역 △1919년 종교계를 중심으로 거족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 참여 △불교계 〈독립선언서〉 배포 및 만세운동 동참 권유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 논설 집필 △석방된 뒤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상무위원 활동 △민족교육 위한 사립대한 건립운동 앞장 △신간회 창설에 발기인 참여 및 경성지회장 활동 △창씨개명과 조선인 학병출정 반대운동 등을 만해 스님의 공적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한편 재단법인 선학원은 만해 스님 입적 75주기를 맞아 6월 22일 나루아트센터서 만해예술제를 , 29일 AW컨벤션센터서 만해추모제를 개최한다. 또한 독립기념관은 6월 한 달간 특별기획전시장(제5 · 6관 통로)에서 만해 스님 사진 등 전시회를 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애도"

대변인 명의 애도문 발표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에 조계종이 애도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5월 31일 대변인 오심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유람선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무엇보다 사고로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속이 구조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어 "정부는 국가적 재난 사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단 한 분이라도 우리 국민이 머나먼 타국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슬픔과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분들과 국민들의 슬픔이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위로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2천만 불자 모두가 함께하겠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함께 실종자 분들의 무사생환을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서재영 위원이 제시한 '재가불교운동 성공조건' A3 | 한국명상지도자협, 2019한강명상걷기대회 A5



지은이 **혜담 스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하였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소청심사위원·호법부장·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깨달음의 글로써 대중과 소통하기도 했다.
역서 및 저서로 『대품반야경(상·하)』, 『반야불교 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등이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상(無常)한 물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닌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필독서!

진리란 무엇인가? —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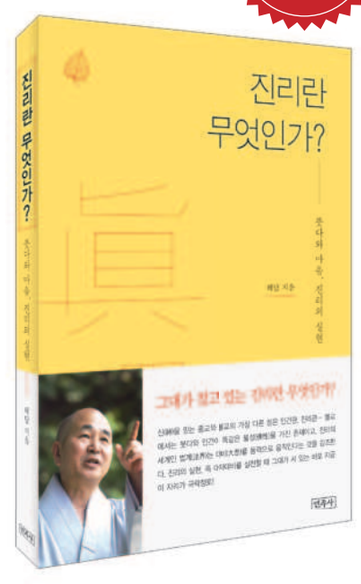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선(禪)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이 책은 반야·공 사상 연구와 수행·교화에 힘써 온 혜담 스님이 선(禪)의 입장에서 선불교 전체를 망라하여 붓다와 마음, 불교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을 주창한 광덕 스님의 말씀이 이 책 집필의 원동력!

신(神)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 불교에서는 붓다와 인간이 똑같은 불성(佛性)을 가진 존재이고,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



혜담 지음 ‖ 248쪽 ‖ 13,800원 ‖ 변형신국판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봉은사 망실토지, '정부 70억 배상' 판결

서울 봉은사, 5월 30일 고법 상고심서 승소

1심보다 10억 원 줄었지만
정부 책임 명백히 인정돼

50년 전 봉은사가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망실한 땅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약 7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강영수)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부가 봉은사에 약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한 봉은사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시 8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봉은사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봉은사가 배상 판결을 받은 토지는 서울 강남구 일대 793.4㎡(240평)으로 1950년대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소유가 봉은사서 정부로 넘어갔다. 당시 정부는 봉은사 소유의 삼성동 일대 토지 6만8970㎡(2만900평)을 매입했다.

정부는 1968년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민들이 불하를 받지 못한 토지를 원소유주인 봉은사로 돌려줘야 했으나, 1971년 공무원들의 서류조작으로 봉은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당시 1979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은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명백한 서류 조작에 의한 토지 망실이기에 봉은사는 취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월 취득시효 완성으로 패소했고,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해당 토지는 1968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소유주인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해당 토지 시가 합계액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이다. 법원의 판결은 봉은사가 토지 지가 보상을 받았고, 부주의 내지 공평원칙으로 일부 정부 책임이 제한된 보상액에 해당한다.

노덕현 기자

호명 스님 공약 "첫째도 둘째도 화합"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단독후보에게 듣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화합이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로 여겨집니다. 총무원장 당선이 확정되면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이라는 마음으로 종도들의 뜻을 하나로 뭉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순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은 종헌종법에 따라 6월 27일 진행되는 총무원장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4일 호명 스님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승가교육 · 포교 · 종무행정 등 각 분야에 대한 공약과 목표를 들어봤다.

호명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이후 첫 계획을 '3원장 회의의 활성화'로 잡았다. 총무원장 · 종회의장 · 호법원장이 함께 종단 주요사안을 논의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종무원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종법기구로 격상시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종단을 화합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제가 총무원장에 당선되면 종단의 모든 일은 3원장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할 겁니다. 또한 지방종무원장협의회를 친목단체가 아닌 종법기구로 격상해 종무원장들이 종무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풀뿌리 종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명 스님은 승가교육과 승가복지, 포교를 주요한 종단 현안으로 꼽았다. 시대 흐름에 따른 출가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출가자의 고령화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태고종에서도 풀어야할 핵심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호명 스님은 학사학위과정은 운영하지 않고, 석 ·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 등의 교육시설 설립을 꿈꾸고 있다.

"과거에 태고종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와 인연을 쌓았던 것처럼 다시 관계를 개선하거나 여력이 된다면 새로운 대학원대학교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내에 쉽사리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큰 틀을 잡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선암사 강원도 출가자가 점차 감소해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

3원장 회의 활성화 비롯해
종무원장協 종법기구 격상
종단 위상 높일 방안 모색
"풀뿌리 종도 의견 청취를"

호명 스님은 또한 태고종 특성상 스님들의 2~3세대 자손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종단인재로 키워낼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태고종은 대부분의 종단 채무를 해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특별기금으로 남아있던 18억 원을 전액 사용해 교육기금이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폭력분규사태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순서도 2순위에서 5순위까지 내려앉았다.

호명 스님은 이 같은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전문가인 스님들을 만나 교육기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스님들이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전순서와 관련해서는 "태고종이 수석부회장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이미 다른 종단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다른 종단과의 교감을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대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은 6월 4일 종무회의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종단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누가 원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 상월원각조사 45주기 열반재

단양 구인사서 불교지도자 등 2만여 대중 추모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천태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불교운동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한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의 열반을 추모하고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5월 31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불교지도자, 지자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45주기 열반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봄바람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듯 천지만물이 제각각의 본분사를 이어가니, 대조사님의 정법 향훈이 가득한 우리 종단은 원만각행의 보살도를 펼치며 사회와 국가의 번영을 향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은 차석부회장 회성 정사(진각종 통리원장)가 대독한 추도사에서 "대조사께서는 민족의 암울한 시기에 수많은 중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천태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며 "천태종은 대조사님의 가르침과 불조의 혜명을 이어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나가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조 가르침 지혜의 빛 삼아"

조계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
6월 4일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한국불교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다례재가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하고, 도의국사가 한반도에 남긴 값진 선풍을 선양했다. 다례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교역직 종무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조의 법향이 시절인연을 좇으시니, 회적도명타가 무위임운으로 진리의 본체를 드러냄이라. 이로 좇아 조계종지가 동서와 고금을 넘어서 면면부절하여 금일에 이름이라"며 "종조께서 염원하신 선풍진작과 화합원융의 원력으로 사해오호의 만 중생들이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며,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 진리의 낙을 영득하게 하여지이다"고 강조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조계종 스님들이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에서 예를 올리고 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모사에서 "조계종은 17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선과 교를 아우르며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평상심이 곧 도이며, 마음의 법문이라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켰다"며 "후학들은 조사님의 가르침과 역대 선사들의 말씀을 지혜의 빛으로 삼아 정진해 나가고 있다. 울창한 숲과 같은 선대들의 유산 안에서 불교의 현대화, 사회화를 모색하고 있다. 자비 나눔 등 한국불교의 사회적 활동과 복지는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듬고 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뭇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지름길은 수행하는 종단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다. 화합하고 혁신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면서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오늘의 서원으로 받들어 환한 백만의 연등으로 피워내고 있다. 한국불교 백만원력결집의 공덕이 내일로 이어져 온 세상 국토와 중생의 삶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의국사는 통일신라시대 스님으로, 중국의 조사선 전통을 최초로 국내에 들여와 선법을 펼쳤다. 직접 조계종을 개창하지는 않았지만 선종의 역사에 굳게 자리 잡아 해동선문의 초조로 추앙받는다. 이에 조계종은 1941년 제정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산태고사법'에서 명시한 도의국사 기일인 음력 5월 2일에 맞춰 매년 다례를 봉행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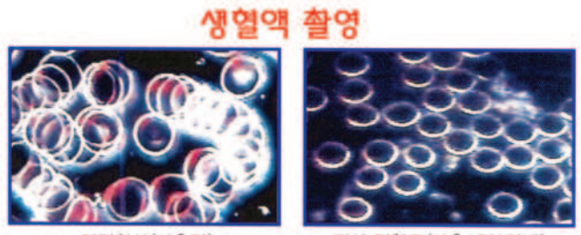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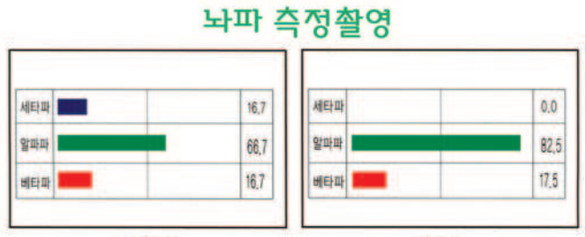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재가불교 성공, 폭로보다 대안에 있다”

서재영 편집위원, 〈불교평론〉 권두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재가불교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와 모범적 실천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재영 〈불교평론〉 편집위원<사진>은 〈불교평론〉 여름호(78호) 권두언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재가불교운동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권두언에서 재가불교가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6가지 성공 조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편집위원이 첫 번째로 꼽은 성공 조건은 ‘목표의식’이다. “출가든 재가든 종단중흥과 조직 성장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서 편집위원은 “불교의 목표와 모든 활동은 불법을 널리 펴는 전법(傳法)으로 귀결돼야 한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재가라고 해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안적 주체로의 전환’을 재가불교운동의 두 번째 성공 조건으로 서 편집위원은 꼽았다. 특히 대부분의 재가운동이 승단 비위 폭로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지를 견지했다.

서 편집위원은 “승단의 비위를 바로잡고 교단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종단 정화라는 명분으로 치부를 무차별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고 발길을 끊게 만드는 것이 대안적 실천일 수는 없다. 이런 인식과 활동은 여전히 출가중심의 전통에 목매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가운동 성공 조건 분석해
종단중흥 아닌 傳法 목표를
비위 폭로, 대안적 실천 아냐
대안 제시 · 실천적 모범 필요
‘재가불교운동’특집 맞춰 제언



이어 “스스로 독자적 모범을 구축하지 못해 승가 비판에 매몰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라며 “재가불교가 대안이 되려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승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 기반 확립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정신 확립 △종교적 권위 확립도 성공 조건으로 서 편집위원은 제시했다. 조직 기반에 대해서는 특정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닌 공동체와 대중의 힘을 결집하는 노력을 주문하며, 한국의 정토회와 일본의 SGI를 예로 들었다. 서 편집위원은 “재가자 이케다 다이사쿠가 이끄는 SGI의 성장 배경에는 조직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적 권위 확립에 대해서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에서 종교적 권위가 나온다. 욕됨을 참는 것에서 여래의 기품이 나오며, 존재의 공성을 보는 안목과 실천에서 여래의 덕성이 확립된다”며 “재가불교가 성공하려면 이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종교적 내용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종교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성공 조건으로 서 편집위원은 재가불교 스스로 실천적 모범이 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리가 있고 논리정연한 웅변만으로 종교운동이 성공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종교적 실천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재가불교가 대안이 되려면 승가에 대한 비난자가 아니라, 삶과 종교적 실천에서 모범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날 재가불교운동을 주창하는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것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깃발이다. 교단의 삿됨을 무너뜨려 정법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올바름을 드러내는 것(顯正)’이야말로 가장 근원적 파사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평론〉 여름호(78호)는 특집으로 ‘재가불교운동을 이끈 사람들’을 다뤘다. 특집에는 김기추 · 이종익 · 이한상 · 장상문 · 이기영 · 박완일 · 목정배 · 여익구 총 8명의 재가불교 선지식들에 대한 소(小)평전이 실렸다.

해인사역 유치 해인사 · 거창군 손잡다

5월 30일 공동추진위 출범… 남부내륙고속철도 유치



해인사와 거창군은 5월 30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해인사역 유치 해인사 · 거창군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을 유치하기 위해 해인사와 거창군이 손을 잡았다. 해인사와 거창군이 해인사역 유치에 함께 나서기로 하면서 역사 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주지 향적)와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5월 30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해인사역 유치 해인사 · 거창군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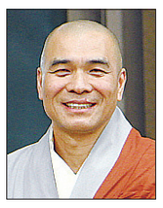
위원회에는 해인사와 거창군 양측 30여 명의 공동추진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남부내륙권에서 역사 조성에 관한 결정은 정략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지방과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철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역사의 위치는 구)88고속도로 해인사 IC가 최적의 장소이며, 역사의 명칭은 해인사역이 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해인사역 유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100만 명이 넘는 해인사 내방객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고속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해인사역이다. 김천~거제구간에 가장 명승지인 해인사를 포함하지 않고 역사가 유치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구인모 거창군수도 “해인사역 유치는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남부내륙지역 주민 모두가 교통 편익을 누리고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성주군, 서대구 등이 동반성장 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창군과 해인사는 “향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해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역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퇴휴 스님, 국가인권위원 후보로 추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퇴휴 스님<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10~20일 후보 공개모집에 지원한 23명 중 심사를 통해 최종후보 3명을 추천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는 퇴휴 스님과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양정숙 변호사 등 3명이다. 3명의 후보는 6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계환 스님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퇴휴 스님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를 역임했으며, 2012년부터 한국투명성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지혜 교수는 2015년부터 강릉원주대 교수를 맡고 있으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사다. 양정숙 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호섭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2차 수색 촉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외교부 앞 릴레이 기도회

2017년 3월 31일 한국인과 필리핀인을 태운 ㈜폴라리스쉬핑의 벌크선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고에 대한 2차 심해수색과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서문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 촉구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백비 · 현성 · 보영 스님, 스텔라데이지호 박성백 1등항해사와 허재용 2등항해사 가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지몽 스님은 먼저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미수습자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했다. 지몽 스님은 이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후 2년이 넘었지만 수색은 중단된 채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애타지만 외교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계종 사노위는 수색이 시작되고, 원인규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 대한 2차 심해수색을 촉구하는 조계종 사노위 스님과 실종자 가족들.

실종된 허재용 항해사의 누나 허영주 씨는 “1차 수색이 9일 만에 중단됐다. 선체와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2차 수색을 통해 침몰원인 규명과 유골 수습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외교부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면서 “스님들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자 기도회를 마련해주셨다. 종교인의 마음이 외교부 관계자에게 닿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나은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는 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을 태운 초대형 광석운반선이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24명 중 22명이 실종되고, 2명만이 구조됐다.

윤호섭 기자

민주화운동 불교주역들, 한자리에 모인다

6월항쟁 불교도반 한마당, 6월 29일 세종문화회관

1980년대 사회민주화와 불교자주화 운동에 앞장선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6월항쟁 불교도반은 오는 6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6월항쟁 불교도반 한마당’을 개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출 · 재가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과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가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며, 일선사 한주 장적 스님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이 행사는 민주화운동 주역들의 뜻을 모아 마련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추모묵념 △공동추진위원장 인사말 △경과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과 이웃종교 지도자 등의 축사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6월항쟁과 불교〉 저자 윤금선 작가의 주제 강연 등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 6월항쟁 관련자뿐 아니라 사월화 운동을 주도한 주역, 민중불교운동연합,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와 대승불교승가회, 동국대 석림회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 학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행위원장 장적 스님은 “오래전부터 당시 함께 활동했던 출재가자들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지난해 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펴낸 〈6월항쟁과 불교〉 소식에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밑바탕이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必환경 시대… '녹색불교' 만들기 나선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 캠페인 본격 전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지구적 환경 문제로 인해 '필환경'이 새로운 시대 조류로 부각되고 있다. 1회용품을 최대한 지양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과 동물권 보호를 위한 '비거니즘'은 이를 잘 보여주는 운동들이다. 생명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계에서도 '그린 부디즘'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된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가 제시한 '녹색불교 만들기' 캠페인은 △녹색사찰 발굴 및 협약 △환경법회 및 교육 △버드나무 방생법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다이어트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부터 불교환경연대가 시행 중인 녹색사찰 발굴·협약 사업이다. 현재 6호 사찰까지 협약이 진행된 녹색사찰은 사찰 내 1회용품, 플라스틱 제품을 지양하고 텀블러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모범적인 친환경 실천 도량을 발굴·협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올해 중으로 녹색사찰을 20곳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녹색사찰을 인증하는 '에코 템플' 현판을 협약사찰에서 제공하고 '녹색사찰'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6월 중

지난해 시작한 녹색사찰 확대
1회용품·플라스틱 안쓰기 유도
녹색사찰 선행 사례 발굴 계획
19일 '생태 방생' 주제 세미나

2곳의 사찰 협약이 예정돼 있다. 주위 스님들에게 녹색사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만큼 더 많은 사찰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가 전개할 계획인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녹색사찰과 불교 만들기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는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주영 사무처장, 상임대표 법만 스님, 유정길 운영위원장.

는 △사찰서 우산 비닐 사용 않기 △사찰 행사서 비닐, 1회용기 사용 않기 △신도들에게 텀블러 사용 권장 등을 유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 사무처장은 "녹색사찰 중에는 회수용 다회용기를 배치해 보증금을 받고 다회용기에 떡과 과일을 담아주고, 용기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면서 "이 같은 선례를 녹색사찰 단체 채팅방에 소개하면 다른 사찰들도 벤치마킹하게 된다. 녹색사찰과 연계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생 모델로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하고 있는 버드나무 방생 법회도 주목할 만하다.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고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교환경연대는 여주 신륵사에 버드나무 묘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생법회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분양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4대강 수질 정화를 위한 자체 방생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 중이다. 올해에는 오는 6월 29일(한강), 9월 28일(영산강), 10월 12일(낙동강), 10월 26일(금강)에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연다.

또한 불교환경연대는 '녹색불교 아카데미' 등을 통해 불자들에게 환경 현안을 알리는 특강과 법회가 사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찰 중심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대형사찰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중소사찰을 중심으로 녹색불교 만들기를 전개하려 한다"면서 "점에서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들고, 선을 연결해 면을 만들어 '녹색불교'라는 인드라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이제는 환경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감시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부처님의 생명평화 사상에 대해 일반 대중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녹색불교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생명살림을 위한 생태적 방생문화를 위해'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방생 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 연구가 소개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 인성프로그램 공모

6월 14일까지 접수, 청소년 수행법 주제

불교수행법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조계종 포교원 인증 인성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공모 주제는 불교수행법을 활용한 '언어와 평화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불교수행법인 염불과 참선, 지계, 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찰과 단체, 학교,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2개 이상의 수행법도 포함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14일까지 공모신청서와 프로그램 지침서, 실제 운영에 쓰일 교재를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포교원 인증 인성 프로그램 공모는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금강선원 '청소년 십분 집중명상' 등 총 16개 프로그램이 인증됐다. 우수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 포교원 발간 청소년인성 인증 프로그램 가이드북 게재, 지침서 발간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문체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노덕현 기자

공불련, "세상 지키는 부처님 불빛 되길"

제27차 성지순례 및 합동수계법회



공무원 불자들이 범어사에서 제20차 합동수계법회를 열었다.

한국공무원불자들이 부산 범어사를 순례 방문하고 합동수계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불자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불빛과 관세음보살이 될 것을 서원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6월 1~2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제27차 성지순례 및 제20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입재법회 △쿠무다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참선 정진 △예불 △걷기명상 △수계법회 등이 진행됐다.

입재식에는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주지 경선 스님과 각 기관 대표 불자공무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김상규 회장은 "세상이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세상을 지키는 불빛이 되어야 한다"며 "불심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보호자, 관세음보살이 되길 바란다. 오늘 범어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로 사회를 넉넉하게 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년포교 희망'…김해 불교학생단 창단

6월 1일 바라밀선원서 '마음쉬는곳'으로 명명

청년 포교 중흥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도 자발적인 불교학생봉사단이 창립됐다.

김해 불교학생봉사단 '마음쉬는곳'(단장 엄본웅, 김해 경원고 2학년)은 6월 1일 김해 바라밀선원(주지 태감)에서 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했다.

김해 불교학생봉사단은 자발적인 불교학생들의 봉사단이다. 지도법사 태감 스님(바라밀선원 주지)과 엄본웅 단장은 불교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묶는 단체 필요성을 느껴 이번 봉사단 창립을 주도하게 됐다. 김해 불교학생봉사단에는 약 30여 불자 청소년들이 이름을 올렸다.

자발적인 창단에 지역 불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국대 재학 시절 봉화 정토원 창립이란 자발적 불자 청년운동을 펼친 선진규 봉화 정토원장은 발대식 축사를 직접 맡아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법사 태감 스님과 불자청소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선진규 원장은 "불교계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미약함에도 이렇게 스스로 앞장서 불교 학생봉사단을 결성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김해에 있는 선배 불자로서 불교의 미래가 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엄본웅 단장은 "바라밀선원 주지이신 태감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으시고, 전남대 불교학생회 측에서 마음쉬는곳이란 이름도 함께 쓸 수 있게 해주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업과 불자로서의 소양도 갖출 수 있는 불교청소년봉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영 학생(김해 경원고 1학년)은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스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 마음 치유를 받고 싶다. 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학업과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청 99주년 기념 '통일' 청년대회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제38차 전국불교청년대회

2020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불교청년회(회장 하재길)가 6월 22~23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창립 99주년 기념 제3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통하였느냐 일어나는 청년불자여!'를 주제로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불청대회는 임진각에서 도라산전망대까지 DMZ평화통일 순례가 진행된다.

또 통일 기원 대동한마당도 열려 통일과 관련된 노래와 율동 배우기, 전국 법우들을 상찬하는 불청대회 시상식도 진행된다.

대불청 측은 "창립 99주년을 기념해 대불청 회원들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활동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만해 스님의 시대정신을 재정립하고 큰 뜻을 이 시대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738-1920

노덕현 기자





한강명상걷기대회에 참여한 불자와 시민들이 걷기명상을 통해 삶을 되돌아 보고 있다. 한걸음 한걸음 조용히 걷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협회장 혜거)는 서울시와 함께 6월 1일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걷기 명상 대회를 개최했다.

한걸음씩 한강 걸으며, 나와 세상을 보다

한국명상지도자협, 6월 1일 2019한강명상걷기대회 개최



한강명상걷기대회 시작점을 나서는 불자들의 모습.



묵언을 쓴 티를 입은 불자들이 한강을 바라보고 명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여해 걷기명상 참가자를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에 신선한 기운을, 또 걷기명상을 통해 건강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에게 행복을 전합시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한강변에 조성된 숲길을 걷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유난히 경쾌했다. 한강을 걸으며 명상을 하고, 걸음마다 소외계층도 함께 돕는 2019 한강명상 걷기 대회가 열렸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협회장 혜거)는 서울시와 함께 6월 1일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걷기 명상 대회를 개최했다.

'명상, 한강을 걷다' 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명상지도자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부부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한국명상지도자협회에 등록된 19개 단체 회원들과 시민 등 3000여 명이 몰렸다. 2019한강명상걷기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명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대회는 한강 변을 따라 약 3.7km를 걸으며 전문 명상 지도자와 함께하는 명상과 잠시 서서 한강을 바라보는 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한국명상지도자협회장 혜거 스님은 최근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명상을 통한 아픔 치유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혜거 스님은 "우리 개개인이 마음을 가다듬고 한걸음 한걸음 좋은 세상을 위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세상이 완성될 것"이라며 "명상의 참 의미도 개인적인 수행과 함께 우리 사회 고통의 근본을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 · 행복 · 나눔 걷기대회
불자 · 시민 3000여 명 참가
걸음 기부 · 소장품 판매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최근 불교명상이 나눔과 보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원행 스님은 "현재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 행복의 길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신평화와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한 이 걸음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교에서 심우도를 즐겨 보는데 걷는 것 자체가 깨달음을 참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며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순례길과 트레킹 코스를 만들고 있다. 불자 여러분들도 서울시가 구성한 다양한 길을 걸으며 서울시 행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걷기명상 출발에 앞서 지운 스님(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은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쉼표가 있어 울림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마음에도 쉼이 중요하다. 걸으며 마음 쉼을 통해 하나씩 돌아보라"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발바닥만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발바닥과 발가락, 그 다음 발바닥과 발가락, 손가락까지 다시 정수리를 더해 온몸으로의 현재를 느끼세요. 마음 속 일어나는 오만가지 생각을 내버려두고 반응하려 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호흡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여의나루 물빛광장에서 시작해 여의도 마리나 클럽까지 3.7km 구간에서 진행됐다. 중간 중간 쉼과 동시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명상할 때는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고, 나들이에 나온 다른 시민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일사분란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대회서는 특히 걸음마다 기부 앱 워크온을 통해 1원씩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워크온' 은 공유 만보기로 그룹별로 함께 걸음을 걸은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시 측과 연계된 기업에서 걸음마다 1원씩 기부참여를 지원했다. 여기에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들이 소장품을 내놔 700만원의 소외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했다.

목우선원에서 온 신혜숙 씨는 "좌선도 좋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명상, 혹은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며 마음챙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김창겸 씨는 "걷기명상과 함께 아이들과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 뜻깊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걷기명상 대회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후 점심 무렵 끝이 났다.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도 할 수 있었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들의 소장품을 현장 플리마켓에서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한다. 이날 모인 기부금은 전액 서울시 거주 '저소득 · 한부모 가정 산모 영양제' 지원과 사회복지원각 노인 무료 급식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장 선업 스님은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교의 정신문화를 널리 알리고, 건강을 위한 관심까지 끌어 안아 대회를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회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

주 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일 시 2019년 6월 15일 (토) / 9:30 ~ 17:30

장 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제3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

올해는 대행선사가 탄생하신지 92주년이며, 열반하신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선사께서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 정진하셨고, 그 증득한 바를 평생 중생교화로 회향하셨습니다.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홍익중생하기 위하여 이제 본 연구원에서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일년간 공부한 바를 펼치려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 개회식

09:30 ~ 10:00
접수

10:00 ~ 10:30
개회식

2부 | 학술발표 (오전) 10:50 ~ 12:10

사 회 … **이병욱** 교수(고려대)

10:50 ~ 11:30
발표 :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
논제 :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연구
[니까야(Nikāya)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논평 : **조준호** 교수(고려대)

11:30 ~ 12:10
발표 : **이석환** 교수(동국대)
논제 : 하쿠인(白隱)과 대행의 대중포교에 관한 연구
논평 : **원영상** 교수(원광대)

3부 | 학술발표 (오후) 13:00 ~ 17:30

사 회 … **김호귀** 교수(동국대)

13:00 ~ 13:40
발표 : **오지연** 교수(동국대)
논제 : 법화천태 교관과 대행선
논평 : **최동순** 교수(동국대)

13:40 ~ 14:20
발표 : **박재현** 교수(동명대)
논제 : 한국 근대 선불교의 개혁 노선과 깨침의 사회화
논평 : **박인석** 교수(동국대)

사 회 … **이상호** 박사(서강대)

14:40 ~ 15:20
발표 : **김방룡** 교수(충남대)
논제 : 한국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위상과 의의
논평 : **정 도** 스님(동국대)

15:20 ~ 16:00
발표 : **오경후** 교수(동국대)
논제 : 한국 선종사에서 대행선의 가치
논평 : **정영식** 교수(성균관대)

좌 장 … **한상길** 교수(동국대)

16:20 ~ 17:30
토론광장 및 마무리

“사명대사 호연지기 잊지 말자”

팔공총림 동화사, 사명대사 추모다례재 · 백일장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는 6월 1일 전국 각 사찰에 모셔진 사명대사 진영과 동화사에 봉안된 보물 제1505호 사명대사 진영 영인본를 한자리에 모아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사명대사 그리기 백일장을 열었다.〈사진〉

다례재에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과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지선 스님, 장세철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취타대와 함께 사명대사 진영을 대웅전에서 통일대불광장 특설무대까지 이운해 종사영반, 헌다, 헌화, 봉행사,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사명대사가 울산포 적진의 심장에 비수를 날리던 호연지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누란의 위기에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동화사는 오는 10월까지 사명대사를 주제로 사명대사 진영 전시, 승병체험, 승탑돌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인재 거듭나길”

영천 은해사, 선화여고 수계법회 · 템플스테이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고 수계법회 및 템플스테이를 경내 중악관 육화원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증명법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선본사 주지 법성 스님, 수태사 주지 성본 스님, 이연화 신도회장, 김창열 은해사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이봉오 선화여고 교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증명법사 돈관 스님은 “수계의식은 불자로서 마음다짐을 새롭게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의식이다. 각자의 희망을 펼쳐나가는 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뒤 마정수기와 연비로 수계자들에게 계를 내리고, 묵주를 전달하며 참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기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해운정사, 정정복 신도회장 임명

조실 진제 스님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



정정복 부산불교신도회장이 부산 해운정사 신도회장으로 임명됐다.〈사진〉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6월 3일 해운정사 원통보전에서 해운정사 신임회장에 정정복 회장(부산불교신도회장)을 임명했다. 조실 진제 스님은 초하루 정기법회 법문 후 정정복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그동안 신도회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새롭게 모시게 됐다”며 “신임회장으로 더욱 정진하고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복 회장은 “앞으로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스님들을 잘 모시고, 신도들을 부처님처럼 받드는 모습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복 회장은 부산시축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갑) 위원장,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유물로 본 범어사 호국역사

범어사 성보박물관 ‘佛法으로 국가 수호’ 특별전

창건 당시부터 근대기까지
호국역사 담긴 유물 공개
10월 10일까지 전시 개최
범어사 사명대사 진영 등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한 범어사 사명대사진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창건역사가 담긴 〈범어사 창건사적〉과 ‘범어사 석가여래 사리탑비’,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은 호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불교 호국 역사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특별전 ‘불법으로 국가를 수호하다-선승에서 승군으로’를 전시중이다. 전시는 호국사찰로 창건돼 그 정신을 이어온 범어사의 역사를 주제로 담고 있다. 범어사는 〈범어사 창건사적〉에도 기록돼 있듯이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창건됐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승병들이 임진왜란에 활약하던 때 범어사 역시 승병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국청사와 해월사 승려들과 기간병역으로 배정돼 국가 수호를 위해 힘썼다.

이후에도 범어사의 호국사상은 끊이지 않았다. 민족 암흑기인 일제강점기에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고, 만세운동 및 대한승려연학독립선언을 주도했으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선학원, 명정학교, 지방학림 등 교육기관을 설립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호국불교 정신을 가지고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가담, 조국광복에 공헌했다.

이번 전시는 2019년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범어사 3 · 1운동과 명정학교’ 특별기획전에 이어 열리는 특별전시이다. 범어사가 만세운동을 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시서는 △범어사의 호국창건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범어사 창건사적〉 목판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한 ‘범어사 사명대사진영’ △승병을 통솔할 때 사용한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55호) △범어사의 승병활동을 보여주는 ‘범어사 금정산성 죽전마을 화살과 화살통’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범어사 3 · 1운동과 명정학교’ 특별기획전을 잇는 범어사 만세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유물도 선보인다. 유물은 △범어사 석가여래사리탑비 △안적사 지장시왕도 △범어사 경허스님 시판 등이다.

‘범어사 석가여래사리탑비’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용성 스님 입적 후 탑비문과 찬(탑비내용)을 직접 썼으며, 범어사 만세운동의 주역 1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19년 3월에 제작된 〈안적사 지장시왕도〉(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9호)는 대표적 불모였던 완호당(玩虎堂) 낙현(洛現) 스님(1869~1933)의 작품이다. 금어(金魚, 불화 최고 경지)로 칭송 받은 완호 스님은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완호 스님은 일제의 강요에도 불화의 화기(畵記)에 단 한 점도 일본 연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범어사 설법전 위치는 완호 스님이 작품 활동을 한 불화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불화소가 사라진 뒤 복천사로 완호 스님은 돌아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완호 스님이 불화 작품을 이어간 부산 영도 복천사는 항일독립운동가 양정욱의 은신처이자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라는 주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범어사 성보 박물관은 “올해는 완호 스님의 탄생 150주기를 맞는 해이며 스님의 작품으로 다채로운 호국 전통 문화를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범어사 경허스님 시판’은 명정학교의 시초가 된 범어사 선원 개설 당시 경허 스님이 직접 쓴 시를 목판으로 제작해 남겨둔 것이다. 선의 대가인 경허 스님의 입적 80주기를 맞아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유물이다.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전시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051)508-6139

“정토선(淨土禪) 수행가풍 진작”

서방사, 허운화상 사리탑 봉안 관정대사 입적 12주기 다례도


대한불교정토선종은 5월 2일 고성 서방사에서 허운화상 사리탑 봉안 및 관정대사 12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정토 염불수행과 선 수행을 동시에 이어가는 대한불교정토선종이 허운화상의 사리탑 봉안과 관정대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수행 정신을 널리 알렸다.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은 5월 2일 고성 서방사에서 허운화상 사리탑 봉안 및 관정대사 12주기 다례재를 개최했다. 허운화상 사리는 2001년 총무원장 등정 스님이 관정 스님에게 가사와 함께 거제 오성암에서 전달 받은 것이다. 사리탑에는 허운화상 사리 3과가 봉안됐다. 허운화상(1840~1959)은 중국 근대사에서 중국불교의 선풍을 지켜온 선지식으로 〈참선요지〉를 펴내 선 수행을 진작하고 널리 알려왔다.

관정대사 다례재는 △정토선염불 △관정대사 행장소개 △정토선종 종정 정암 스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관정대사(1924~2007)는 허운화상의 조동종 48대 전법제자로 선 수행을 이어오다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 ‘정토선’을 익히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등정 스님은 “정토 염불수행과 선을 함께 닦는 선정쌍수 수행법을 잘 알아야 한다”며 “정토선 수행은 자성염불 단계, 일념 단계, 무념 단계 등 3단계로 나눠져 뚜렷한 로드맵이 제시돼 말세에 근기가 약한 중생을 위한 최고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방사는 지역민을 위한 ‘제9회 고성보리수 축제’도 개최했으며, 축제는 노래자랑 및 보리수 따기 체험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행사에는 종정 정암 스님, 총무원장 등정 스님, 고성군사암연합회장 이암 스님을 비롯해 백두현 고성군수, 류병조 고성경찰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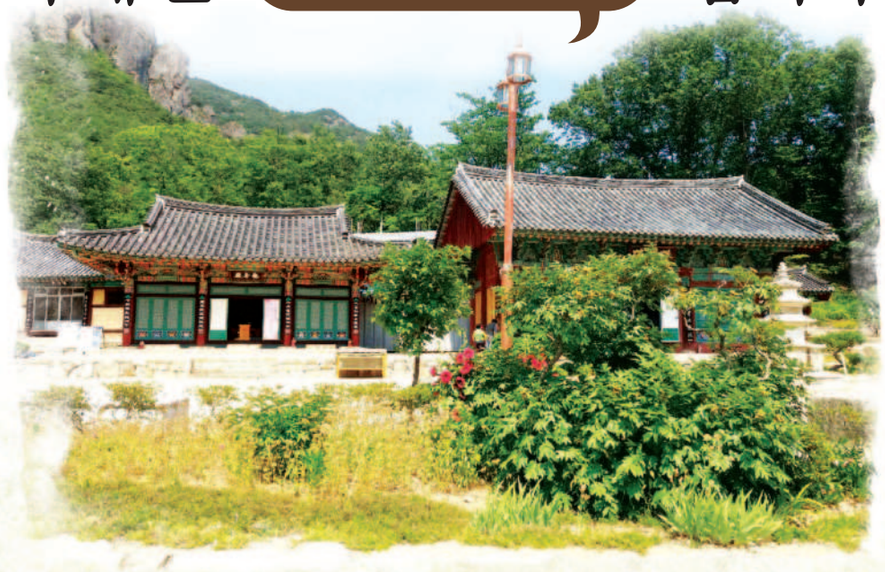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雪(눈), 뭉치지 않으면 자연스레 녹는다”

주제 : 일상에서 얻는 깨달음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



백성호 기자는… 현재 중앙일보 종교담당차장이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선(禪)연구 학술이사를 맡고 있으며, 마음과 관련된 책을 다수 펴냈다.

참선아카데미(회장 각산)이 7월 20일까지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이것이 수행이다’를 운영한다. 6월 1일에는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가 ‘일상에서 얻는 깨달음’을 주제로 강의했다. 백성호 기자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리=윤호섭 기자

오늘은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일상을 벗어난 깨달음은 필요가 없고,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600년 전, ‘아힘사’라는 이름의 인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힘사는 한자로 불해(不害), 즉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름만큼이나 아힘사는 심성이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아힘사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돌아다니다가 한 수행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힘사의 스승이 옆 도시로 출타했는데요. 이때 스승의 부인이 아힘사를 유혹합니다. 그러자 아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승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의 아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힘사가 정중히 거절의 뜻을 표하자 스승의 부인은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뒤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없을 때 아힘사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당연히 분노가 치밀었고, 아힘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는 아힘사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힘사야, 네가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람을 죽여 엄지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너는 열반에 들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던 아힘사는 스승의 말을 듣고 실천에 옮깁니다. 사람을 한 명씩 죽여서 엄지손가락을 잘라 목걸이에 꿰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힘사를 ‘앙굴리마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손가락목걸이를 뜻하는데요. 앙굴리마라가 어느덧 99개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때마침 그 지역 근처에 있었고, 부처님 제자들은 동네에 살인귀가 나타나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부처님은 제자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100번째 마지막 희생양을 찾느라 혈안이던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열반에 들 수 있는 기회,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천천히 걸어가는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다급한 마음에 부처님에게 “멈춰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멈춘 지 오래다.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앙굴리마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앙굴리마라는 자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겁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한 앙굴리마라가 이미 멈춘 사람을 만난 것이죠. 이미 멈춘 자리에서 부처님이 한 말이 우리를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혜롭게 합니다.

이치 알아 지혜롭게 살라는
聖人들의 한결같은 가르침
물음의 씨앗 마음속에 심어
궁리하다보면 답을 찾게 돼

끝내 싹이 튼 물음의 씨앗

사실 우리는 모두 멈춰있는데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저도 사춘기 때 멈춰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저의 외삼촌 한 분이 스님입니다. 초등학생 때 뵈면 불교 얘기도 딱히 안 하시지만, 집에 들렀다 돌아갈 때 단 한 번도 돌아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셨죠. 어머니에게 “스님이 안 보인다”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바랑을 찾아보라고 하셨고, 바랑이 없으면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종교담당기자를 하면서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 결제가 끝나고 만행할 때 들른 것이었죠. 사춘기 때 저는 ‘사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나는 누굴까, 존재의 근원을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돌아보면 스님께서 물음의 씨앗을 던진 것 같습니다. 스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뭘 찾기 위해 인생을 다 걸고 정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가야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생에 깨달음이라는 걸 찾는 건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니까 결국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소멸해가는 존재 하나요. 삶이 기차를 타고 달리는 것이라면, 철로가 끝에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오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인도를 처음 갔을 때인데요. 인도에 가기 전, 저는 인도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갠지스강이 흐르는 바라나시가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엄청 기대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궁금했죠.

저녁 무렵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시장통을 헤치고 들어가는데 강물이 흐르고, 힌두교 사람들이 종교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대단한지는 알 수 없었고 이국적이라고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노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릅답긴 한데 뭐가 대단한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만진 모래도 부드럽기만 했습니다.

해가 다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졌을 때입니다. 가이드가 특별히 강가에 배를 세우겠다고 하더군요. 배에서 내렸는데 장작들이 쌓여있었습니다. 화장터였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강가에 장작만 쌓아놓은 화장터. 시신의 관도 없었고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관이 들어가는 것만 봤으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잠시 후면 저기에 있겠구나. 저렇게 타겠구나. 삶은 참 순간이구나.’ 어떤 논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이었죠. 그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답은 오래지 않아 올라왔죠.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해라.’

제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첫 단추는 사춘기 때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은 마음공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마음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이해하게 됐습니다. 출가하고 출가하지 않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구나. 눈곱만큼의 쟁점도 아니구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님이 가르침을 준 건 간단했습니다. 이치를 알아서 지혜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오랫동안 멈춰있던 바퀴가 다시 굴러가게 한 것은 화장터였습니다.

모든 종교 수행 핵심은 ‘궁리’

부처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죽은 아들을 데리고서 살려 달라고 말이죠. 부처님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라고. 여인은 아들을 살릴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었죠. 동네를 다 돌고 여인은 숲에 죽은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치를 안 거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 여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다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수행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녹을 눈을 계속 뭉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눈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말 녹지 않는 눈인지, 아니면 녹을 눈인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지. 분노, 상처 등의 감정은 유심히 보면 일어났다가 작용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갖습니다. 내가 뭉치지 않고 놔두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죠.

종교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문제를 푸는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제가 강원도의 한 심마니를 취재했을 때 그 심마니가 이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부인과 같이 산을 오르다가 부인에게 근처에 산삼이 있으니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팡이로 삼을 가리키자 부인이 그제야 찾았다고요. 산삼은 잎이 보여야 찾을 수 있습니다. 산삼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하는 이치라면, 그것은 잎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화롭다가도 문제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잣대, 기대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죠. 그럴 땐 물음의 씨앗을 내 안에 깊이 심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말이죠. 모든 종교 수행의 핵심이 ‘궁리’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궁리하다보면 답이 올라옵니다. 불성이 있기 때문이죠. 간화선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같은 불성을 완전히 알기 위해섭니다. 궁리 끝에 찾아오는 잠깐의 불성을 언제라도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말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행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를 찾아갑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하는 깊은 궁리가 곧 용맹정진이고, 이를 반복하다보면 마음의 근육이 생길 겁니다.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종도모집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문화관광부등록번호 2017-9호

총무원장 : 지명 혜광 전화 : 054-481-3110 / HP : 010-7109-3111
총본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동로 465-11 팩스 : 054-481-3123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그 유래가 확실한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오봉사에 모셔진 진신사리가 온 미얀마 바간의 쉐지곤파야

지금은 사리탑 일부만을 세우고 진신사리를 모셨는데 사리탑을 완성하려면 기초공사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신사리를 꺼내야 하기에 친견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고 다시 사리탑 안에 봉안하면 탑을 부수지 않는 한은 친견할 수 없게 되오니 인연 있는 분들은 친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19년 6월 29일(토) ~ 7월 7일(일) 매일 10:00 ~ 13:00

장 소 경기도 연천 오봉사 (연천군 연천읍 현문로245번길 384)

예약방법 www.gangnambu.org/45 접속 후 사리탑건립불사 메뉴 중 [친견법회예약] 선택

주 의 1. 법회 후 친견하기에 10시까지 입장하셔야 친견할 수 있습니다.
2. 점심공양과 차량운행관계로 반드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02-532-0012

진신사리의 유래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강남불교대학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나 이런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불교대학(민족통일진신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

백련산 자리한 한성 최고 정토도량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⑪ 백련사



백련산 일대 정토신앙의 중심지였던 백련사는 억불숭유 시대에도 명맥을 이어 현재까지 정토도량으로 발전하고 있다.

백련산 정토사와 왕실 인연

서대문구 안산을 이어 은평구 녹번동 쪽으로 백련산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 서쪽을 바라보며 자리한 사찰이 백련사이다. 백련사 옛 이름은 정토사(淨土寺)였다. 도성 서쪽에 위치한 탓에 일찍부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정토신앙으로 유명하였다. 한때 서울에 사는 불자들 사이에서 이곳에 다녀와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만큼 이름이 높았다.

백련산은 산세가 높지 않으면서 숲이 좋았다. 조선의 임금들은 궁궐에서 멀지 않은 이곳으로 사냥을 나와 격무에 지친 심신을 달래곤 하였다. 성종은 18년(1487) 3월 19일 임금이 정토사 산기슭에 거둥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재상들에게 짐승 쫓는 것을 탐하여 밭곡식을 밟아 망가뜨리지 말라고 명하였다. 성종은 21년(1490) 10월에도 이곳으로 사냥을 나왔다.

이런 임금의 사냥은 연산군과 중종 때에도 이어졌다. 연산 12년(1506) 7월 왕이 장령 김지(金祉)와 함께 조준방(調隼坊) 군인을 거느리고 서쪽 금표 안 정토사에서 사냥을 하였다. 중종 역시 15년(1520) 11월 이곳에서 사냥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정토사는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 4월 6일 상왕인 정종이 병이 나자 이곳으로 요양을 나왔다.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개경에 머물다 병이 나자 한양 가까운 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곳은 도성에서 가깝고 숲이 우거져 병을 치료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보름 정도 요양한 다음 4월 20일 판원주 목사 권완(權緩)의 집으로 옮겨갔다.

정토사가 조선의 배불정책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세조의 장녀 의숙공주(懿淑公主)의 원찰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주의 이름은 세선(世宣)이었다. 영의정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에게 하가하였으나 성종 8년(1477) 12월 3일 슬하에 자식 없이 죽었다. 양주 개좌동(价佐洞)에 장사 지냈다. 정토사는 의숙공주의 제사를 지내면서 배불의 어려움을 피해가고 크게 중창될 수 있었다.

정토사 수난과 명종 엄단

정토사는 의숙공주의 원찰이 되면서 별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수난이 발생하였다.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탓에 유생들이 독서당으로 이용한 것이다. 독서당은 도성에서 가까운 곳을 성균관 유생들의 독서를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독서당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적으로 허락된 곳이어서 출입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허락되지 않은 정토사에 유생들이 무단으로 침범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정토사의 경우 의숙공주의 원찰이어서 독서당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성 서북쪽에 사는 유생들이 볼 때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무단으로 들어가 제멋대로 머물렀다. 사찰의 입장에서 볼 때 골치 아픈 일이었다.

이 문제가 조정에서 첨예하게 논의된 시기가 명종 즉위 무렵이었다. 사찰의 항의로 유생들의 무단침입을 금지하는 명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려는 관료들의 상소들이 연이어 보이고 있다.

명종 1년(1546) 1월 6일 사헌부에서 유생들의 정거에 대한 철회를 청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정토사에서 독서한 유생들을 정거(停擧)하도록 전교하셨다 하니, 신들은 경악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공주의 제전(祭奠)에는 본래 정해진 곳이 있거늘, 어찌 절에서 행하여 제사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재궁(齋宮)이라 칭탁하고서 내수사로 하여금 제물을 마련해서 삭망제를 지내게 하는 것도 이미 불가한 일인데 더구나 유생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은 오로지 독서를 위한 것으로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 조종조에서는 금지한 적이 없었는데 왕위에 오른 초기에 척간(擲奸)의 명을 먼저 학궁(學宮)에 내려서 권면하는 뜻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불우(佛宇)에 내리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유생을 정거한 명을 도로 거두고 아울러 공주를 승사(僧寺)에서 제사지내는 일도 금하소서."

세조 장녀 의숙공주 원찰
유생 독서당 이용, 논란
왕실 태실 두며 정토사로 명맥

명종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으므로 모후인 문정왕후가 섭정할 때였다. 수렴청정을 하던 왕후는 명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정토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것이 아니다. 조종조로부터 공주를 위해 창립하여 제사 지낼 장소로 삼고 승려로 하여금 수호하게 한 것이다. 유생의 독서는 다른 사찰이라면 본디 무방하지만 정토사는 공주를 위하여 금하는 것이지 유생의 독서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유생이 절에 올라갈 수 없게 된 것이 본국의 옛 제도인데, 근자에 유생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능만(凌慢)하는 풍습만 자라서 거리낌 없이 자행하여 장차 제사를 지낼 수 없어도 그에 대해 금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사로 말했을 뿐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다음날 7일 간원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의숙공주의 제사는 본래 정해진 처소가 있는데도 사찰에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번독한 일입니다. 유생이 절에 오르는 일을 금하는 것이 비록 법전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뜻은 조용한 곳에 가서 독서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정거토록 하라는 분부까지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한번 발표되자 사방의 선비들이 이 말을 듣고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정거시키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아울러 정토사에서의 제사도 행하지 마소서."

왕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윤허하지 않았다.

"정토사는 다른 절에 비할 것이 아닌데 무뢰배들이 분집하여 작폐하고 있다. 때문에 만일 범법 작란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정거법을 가할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연이은 상소에도 윤허하지 않은 이유

1월 10일에 집의 경혼(慶渾), 장령 김언거(金彦琚), 지평 이추(李樞)가 나섰다. "정토사에서 독서한 유생을 정거하라는 일에 있어서도 마땅히 다시 계품하여 새로운 임금의 누가 중외에 전파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1월 12일에 사인 민기(閔箕)가 앞선 세 사람이 올린 의견을 다시 물었으나 명종의 결단은 변함없었다.

"정토사는 공주를 장사지낸 뒤 그곳을 제막(祭幕)으로 삼고 폐단 없이 제사지내온 지 오래다. 지금은 무뢰배들이 유생을 빙자하여 절을 거처하는 집으로 삼고 산이 빨갛도록 나무를 베어다가 온돌을 덥힘으로써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만드니 어찌 마음이 슬프지 않겠는가. 단지 유생에게는 정거 말고는 죄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거시키라고 전교했을 뿐이다. 그런데 대간의 아룀이 이에 이르니, 내가 매우 미안하여 대신에게 의논하려 하였는데 대신의 뜻이 또 이와 같아 나의 마음이 더욱 편치 않다. 유생의 독서는 정토사가 아니더라도 어찌 처소가 없겠는가."

1월 13일 생원 홍천민의 상소,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이명(李蓂)의 차자에도 대답은 한결같았다.

명종 즉위년 정토사의 수난은 명종 21년(1566)에도 발생하였다. 정토사에서 기거하는 유생을 금지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의 엄단에도 불구하고 독서하러 가는 유생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명종이 여러 신료들의 끈질긴 요청과 유생들의 행동에도 윤허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명종은 중종의 소생이다. 중종은 진성대군 시절 잠저에 머물며 의숙공주의 시양(侍養)이 되었다. 그런 관계로 의숙공주는 명종에게 조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토사는 다른 사찰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이다. 의숙공주의 삭망을 행할 때 내수사에서 비용을 내어 제물을 장만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왕실에 의한 폐해와 보호

이런 정토사였지만 왕실에 의한 폐해도 있었다. 광해군의 형 임해군은 원당이 무려 15곳이나 되었다. 불교를 좋아해서 원당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절에서 토산물을 받기 위해 지정하다보니 많아진 것이다.

정토사 역시 도성에 가까웠던 탓으로 임해군의 요구로 산채와 동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피해갈 수도 그만둘 수도 없었다. 임해군이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이다.

임해군이 선천적으로 포악한 면도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겪은 정신적 어려움이 그를 더욱 포악하게 만들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명에 의하여 순화군(順和君)과 함께 김귀영, 윤탁연 등을 대동하고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하여 함경도로 떠났다. 그러나 병사를 모집하지 못하고 오히려 9월 국경인의 배반으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넘겨졌다. 왕족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그는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포로가 되었던 정신적인 압박으로 인해 포악함은 더욱 심해졌다. 분노를 발산시키기 위하여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민가에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는가 하면 일반백성을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성격이 그러했으니 사찰인들 폐해가 없었을까. 정토사 역시 도성에서 가까운 탓에 폐해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정토사가 그런 잡역에서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의 태실을 두면서부터이다. 인조 4년(1626) 8월 예조에서 정토사 앞 봉우리에 대전과 왕세자의 태실을 두고 후일 그곳을 모르게 될 것을 염려하여 표시해 두었다. 그 후 정토사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극락왕생의 도량으로 자리하였고, 지금의 백련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BORYEON 보련기획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집착의 탐욕이 고통 부른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⑪ 모성, 그 질긴 사랑과 집착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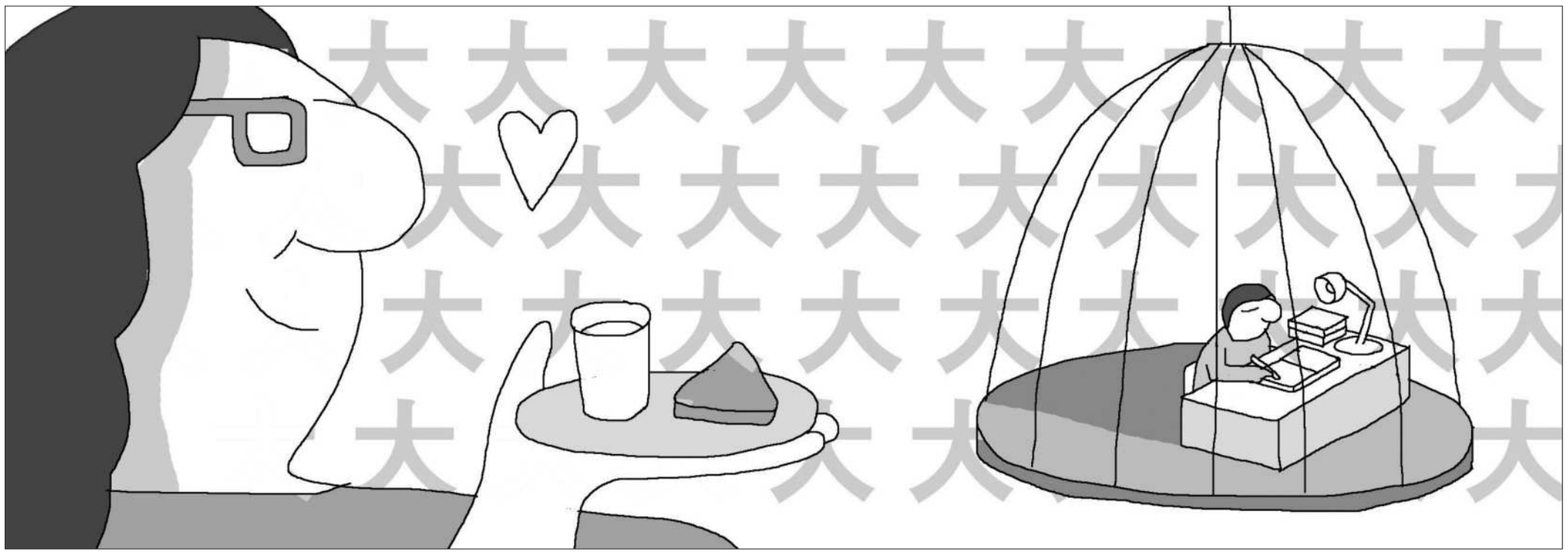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모성만큼 뜨겁고 복잡하고 오색찬란한 사랑이 있을까.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내 손으로 키운 나의 일부'가 자식이니, '내 생명보다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라고 여긴다. 절대의 사랑은 상대에게는 한편으로 협박이고 구속이다. 원치 않아도 사랑이라서 받아들여야 한다니 얼마나 끔찍한 폭력인가.

자식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나가기를 바라는 사랑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가깝게 붙어 있다.

"다 지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잘된다는 건 무엇이며 누거 그걸 판단하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윽박지르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강요하고 굴레에 가두는 일. 사랑이 비뚤어져 집착이 되어버린, 빗나간 모성의 함정에 갇힌 어머니들의 하소연은 익숙하지만 절박하다.

8개월째 엄마와 대화 거부하는 아들

기옥 씨는 뒤돌아서는 아들 뒤통수에 대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을 힘껏 눌렀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서 식탁에서도 얼굴을 들지 않던 아들은 인사도 없이 배낭을 메고 집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플라스틱 컵을 부엌 바닥에 집어 던졌다. 마음 같아서는 유리잔을 대여섯 개 박살내고 싶었다. 유리창에 부딪쳐 와장창 박살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녀는 깨어진 유리조각이 자신을 할퀴는 듯 고통을 느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8개월째 엄마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처박히고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외출할 일이 있으면 나갔다. 엄마의 묻는 말에는 일체 대꾸하지 않았고 전달할 말은 아버지를 통했다. 기옥 씨는 호통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다. 배고프면 지가 어쩌겠나 싶어 식탁을 차리지 않았더니 편의점 김밥이나 라면으로 혼자 방에서 해결했다. 용돈도 끊어보았지만, 마음이 약해져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말았다. 아들이 등을 보인 이후 그녀는 체중이 5킬로나 빠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아들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나

기옥 씨의 코칭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이며, 그녀가 바라는 아들의 미래는 무엇이었는지. 지난 17년간 아들 곁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게 했다.

마흔이 넘어서 어렵게 얻은 외아들은 인생의 전부였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제대로 못 마친 기옥 씨는 아들만큼은 모든 것을 바쳐 지원하고 싶었다. 남편의 사업도 순조로워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아들도 엄마의 정성에 보답하듯 잘 따라와 주었다.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일류 학원 강사들로 팀을 짜는 과외그룹을 조직하는 돼지엄마 노릇을 했다. 동네에서 학원이나 선행학습의 정보가 필요하면 먼저 기옥 씨를 찾았다.

그녀의 모든 일정은 아들의 학업이 최우선이었고, 공부에 도움 되는 사교가 아니면 동창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는 아들의 미래는 그녀의 사는 이유였고 목표였다. 주변에서 아들 칭찬을 하면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듯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그 성공의 정점이 될 터였다.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 하는 아들, 기옥씨의 인생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아들이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 무난하다고 말하는 학원 교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해 가을 그날까지는.

그날 아들은 폭탄선언을 했다.

"이제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엄마는 간섭하지 마세요."

귀도 입도 닫아버린 아들

뭣 때문이냐, 과외를 줄이고 싶냐, 하고 싶은 일이 있냐,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엄마와 대화를 하자… 아들이 왜 한순간에 변했는지 알아보려했으나 아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들은 귀도 입도 닫았다. 완벽하게 자신을 무시하는 아들과 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아들은 엄마를 무시하고 못 본 척 해도 엄마는 깨어 있는 모든 순간에 아들의 기척과 동정에 온 마음이 가있었다. 혹 문자라도 보냈을까, 오늘은 집에 오면 엄마 얼굴을 보고 말을 걸려나. 기옥씨는 하루하루 애가 타고 살이 마르는 시간이었다.

이런 경우에 코칭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코치도 고민이 되었다. 기옥 씨의 상태는 우울증 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아들의 성공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주변의 모두에게서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엄마로 칭송을 받던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지금,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대리만족
학업 강요의 집착 이어져
모성과 집착서 중도 찾자

코칭의 목표가 아들의 입을 열게 하는 것일 순 없다. 코칭 당사자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코치인 엄마가 아들을 이해하는 일이 첫 순서라고 여겼다.

관점을 바꿔보는 롤플레이, 메타미러 모델

관계의 갈등을 이슈로 서로의 다른 입장을 이해할 때, 코칭의 메타미러(Meta Mirror) 모델이 유용하다. 메타미러 기법은 관계의 역할을 바꿔서 다른 관점을 경험하는 롤플레이(Role Play) 중의 하나다. 관계의 갈등이 실제로는 상대방보다 자신의 욕구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델이다. 이는 심리학의 투사(Projection)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자신의 감정이나 소망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투사의 부정적인 형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옥 씨에게 아들과의 위치 이동을 경험하게 했다. 아들은 늘 책상에 앉아서 엄마의 말을 들어왔다고 했다. 기옥 씨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오늘 학교수업은 어땠니?" "학원에선 공부 잘했니?" "시험 준비는 잘되고 있니?" 등 엄마가 자주하는 말을 듣는 아들이 되어 책상에 앉고 침대에 눕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디랭귀지로 표현하게 했다.

기옥 씨는 메타미러를 하면서 한동안 팔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저 끄덕이기만 했다. 코치는 아들이 된 기옥 씨에게 "엄마가 자신의 등을 바라보고 말을 거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라고 물었다. 뒤에 서있는 엄마를 느끼는 아들은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있을 것이라고 아들이 된 엄마는 말했다.

다음으로 기옥 씨에게, 자신과 아들을 제 3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도록 했다. 메타미러 모델에서 위치 이동은 중요하다. 코치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고 말을 거는 엄마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울음을 터뜨렸다.

기옥 씨는 5번의 코칭을 받았고, 매번 자신의 미션을 만들어갔다. 다섯 번째, 그녀의 미션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아들이 집을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성적과 대학입시였다

코칭 과정에서 아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기옥씨는 계속 아들과 대화를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그 과제는 아들이 풀어야 하는 것이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고 말하는 코치에게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내신이 곤두박질 쳐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아들이 빨리 공부를 다시 해야 대학입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아들의 입시에 목을 매고 있는 수험생의 엄마였다.

그 말을 듣자, 코치는 아들이 엄마에게 입을 열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엄마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아들은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들은 엄마의 제일 관심사가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엄마의 바람에 맞추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지금 어머니는 자신에게 등 돌린 아들과 서로 마음을 터 놓는 게 중요한가요? 어떻든 아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가요?"

그녀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모든 고통의 시작인 집착하는 마음

붓다는 무언가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집착이라고 하며 그것을 곧 탐(貪)이라고 하였다, 삼독의 첫 번째이며,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에서 번뇌의 뭉치인 집(集)도 탐착에서 비롯된다.

자식이 일류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램이 잘못된 일일까. 핵심은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은 데 있다. 기옥씨의 관심은 우수한 성적과 일류대학 입학이다. 엄마가 아들의 갈 길을 정하고 무조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욕망이다. 아들이 일류대학에 가서 남들의 찬사를 받아야 하는 엄마의 집착이며 탐이다.

하지만 집착하는 모성을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는 데 우리의 괴로움이 있다. 어디까지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모성이며 어디부터 집착이 되는 것일까. 집착으로 가지 않기 위해 본능의 모든 애욕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사람은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한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이런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다." 〈숫타니파타〉

미욱한 존재는 오늘도 붓다 한 말씀을 찾는 수행을 계속 할 밖에.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낙원상가에서 영남권으로 옮긴 후

초간편 염불전문시스템 하나로 영남권 대·소사찰 석권!

가장 실수없는 선택법 : 초간편 본품으로 법당에서 염불을 해본 후 선택

장기할부 / 카드환영 / A/S 관리 문제로 영남권만 시설함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299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공 희 소리 구경값 한잔

제9회 **반야학술상** 공모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제9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 학술상은 매년 저술상과 논문상 두 분야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나, 이번 반야학술상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시상 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의 많은 추천과 응모 바랍니다.

반야학술상 선정 기준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난 중견급 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수상자 1명에게 1,000만원 지원**
추천 및 응모 마감일자 및 방법	• 2019년 **7월 15일까지** •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 | **www.banyaresearch.org**
시상일 및 장소	추후 공지
문의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 | **구자상** 010-4731-3471, **우명주** 010-9027-5193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장

내면의 혁명은 '고집멸도'로부터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⑪ 고집멸도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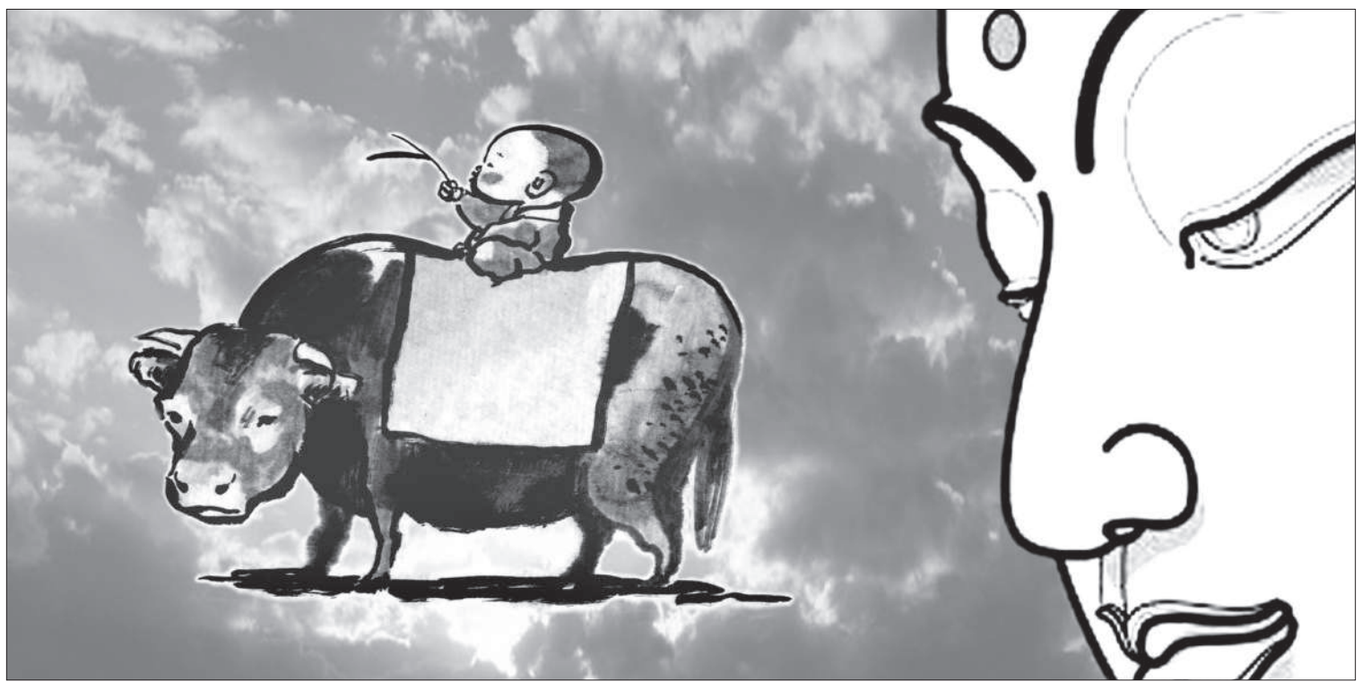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갑자기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픈 사실이 고이다. 왜 배가 아픈지 원인을 생각해보니 아침에 냉장고에 들어있는 오래된 반찬을 먹었다. 그 반찬이 배 아픈 원인인 집이다. 약국에 가서 식중독 약을 사먹었더니 아픈 증상이 없어졌다. 식중독 약이 실천 방법인 도이며, 아픈 배가 나은 것이 해결된 상태인 멸인 것이다.

사성제법인 고집멸도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고'의 원인인 '집'이 있고, '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고가 발생한다. 실천방법인 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고가 해결된 상태인 멸이 생긴다.

과제의 제시, 고

고는 근본적으로 무아와 무상이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설명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성제이다. 마땅히 들어라. 생은 고다. 노는 고다. 병은 고다. 죽음은 고다. 시름 · 근심 · 슬픔 · 불행 · 번민은 고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다. 욕심나는 것을 얻지 못함은 고다. 인생의 양상은 '고' 아닌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결국 생로병사의 인생은 바로 무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무상이며, 생로병사가 바로 무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시름 · 근심 · 슬픔 · 불행 · 번민은 '고'다.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8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8고는 앞에서 설명한 생로병사가 4고이며 시름 · 근심 · 슬픔 · 불행 · 번민은 고다. 했을 때 증오하고 원망하는 원증회고가 고이다. 시름 · 근심 · 슬픔 · 불행 · 번민이 고로서 부처님께서 설명한 다섯 번째 고가 바로 원증회고이다.

여섯 번째 고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다. 미워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고'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바로 '고'이다.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 고인 애별리고이다.

일곱 번째 고는 욕심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고다. 욕심이 나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고이며 얻지 못하는 것이 고다.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구부득고, 이것이 일곱 번째 고이다.

그 다음 인생의 양상은 '고' 아닌 것이 없다. 바로 인생의 양상, 우리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 '고'다. 오음성고의 오음이 무엇인가? 색 · 수 · 상 · 행 · 식 오음이 바로 우리 몸뚱이다.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고다. 몸뚱이는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탐 · 진 · 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몸뚱이는 끝없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욕망이 치성해서 오음성고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생로병사는 무상의 설명이고 뒤에서 4개의 고는 무아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명할 때 고라고 이야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고는 무아고 무상이기 때문이다.

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 달 동안 스스로 찾게 하였으며, 해결방법과 해결된 상태가 수행하는 목적임을 설명한 것이다. 연기를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성제법을 설하신 것이다.

발생의 이유, 집

집은 고집성제, 발생의 원인으로 왜 고가 생겼느냐 살펴보는 것이 집성제의 성립이다. 발생의 원인,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일어났느냐 하는 원인을 살펴보는 일이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적인 방법을 알아야 하고 불교적인 방법으로 살아야한다. 그래야 불자가 되는 것이다.

평생 절에 다니지만 불자일 수도 있고, 불자 아닐 수도 있다. 절에 열심히 나오면 불자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기독교인일까? 예수께서 좋아하는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 영생할 사람, 예수께서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인이다. 교회에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간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찰에 열심히 다닌다고 절대 불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불자일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자다. 진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진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불자인 것이다. 왜 사찰에 열심히 시주를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만 원 갖다 주고 10만 원 어치의 보상을 부처님께 바란다. 1만 원 넣어서 나중에 10만 원의 효과가 있다면 보시함에 돈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보시함에 돈 열심히 갖다 넣는 사람이나 사찰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불자인가?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우주에는 언제나 진리는 있게 마련이다.

> 삶은 부처되기 위한 연습장
> 하루를 사성제로 해결하면
> 어느덧 우린 부처가 될 것

중국에서 불교의 탄압이 4차례나 일어났다. 그런 탄압 속에서도 불교가 살아남았다. 결국 탄압 속에서도 한 두 사람이 불교의 불씨를 다시 일으킨 것이다. 앞으로 불교를 누가 지킬 것인가? 불교를 제대로 아는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불교는 지켜지고 일어난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건에 부딪친다. 어느 하루도 일이 없는 날이 없다. 부부가 싸움을 하던, 자식이 싸움을 하던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을 일으키든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무엇부터 일어나는가? 감정, 자기중심, 자기밖에 없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빗나가게 된다.

'부모미생전'이라는 화두가 있다. 인인 내가 태어나기 전 '나는 누구인가'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화두가 되어 도를 이루게 된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느냐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바르고 행복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바로 발생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세세생생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생에서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 몸을 받아서 한 생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불교를 알았다면 공부를 한 번 해보아야 한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의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한다.

특수교육의 선구자가 바로 부처님이다. 주리반특은 형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출가를 하였다. 수행생활을 6개월 해보니까 도무지 잘 되지 않는다. 동료들에게 비난 받기가 일쑤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동료들에게 방해가 되어 다 싫어하였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먹고 출가를 했는데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주리반특에게 "너는 출가하기 전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다. 주리반특이 "부처님, 저는 청소부였고, 청소를 잘 합니다"라고 답하자 곧장 부처님은 "너는 앞으로 자고나서 밥 먹고 청소만 해라"라고 하였다. 그 후에 주리반특은 잠자고 밥먹고 청소만 하였다.

'부처님께서 왜 내게 청소만 시켰는가'를 자문하던 주리반특은 어느날 문득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청소를 시킨 이유를 스스로 깨쳤다. 내 마음을 닦고 깨끗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뜻을 깨친 것이다. 결국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은 마당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탐진치를 쓸어내라는 것을 깨친 것이다.

실천방법, 도

실천방법인 도는 원인인 집을 알면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된다. 그 해결 방법이 바로 도인 것이다.

어떤 바라문이 극락에 태어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불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수행자들도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바라문교를 믿고 있는 수행자도 최고의 목표가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온갖 짓을 다하고 죽고난 다음 천당에 태어나려고 기도를 하면 극락에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이 바라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됐다. 어떻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천당에 태어나는가? 기도를 해주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라문은 이 같은 회의를 느끼고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바라문을 데리고 뒤뜰 연못가로 갔다. 연못가에서 돌을 던졌다. 돌이 연못에 가라앉았다.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물으니 바라문은 "돌이 가라앉습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돌아 떠올라라! 기도를 하면 돌이 뜨겠느냐"고 물었고 바라문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했다.

"바로 그렇다. 바라문이여, 돌아 떠라 돌아 떠라 아무리 기도해도 저 돌은 무거운 속성 때문에 가라앉는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일을 했다면 나쁜 과보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며 만약 착한 선업을 쌓았다면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바라문이여,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연못에 돌을 던져 바라문을 이해시킨 것이 실천방법인 도이다. 아픈 허리의 원인을 알고 치료하여 낫는 것도 도이며, 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실천방법인 도인 것이다.

해결된 상태, 멸

과제의 제시인 고가 해결된 상태, 또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멸이다. 고집멸도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인 것이다.

고의 상태에서 집, 발생의 이유인 집을 정확하게 알아, 실천방법인 도를 통하여 고가 해결된 상태인 멸이 되는 것이다.

무상, 무아인 고의 상태에서 이것이 연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고가 해결된 락의 상태가 된다.

우리의 삶은 부처되기 위한 연습장이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성제로 해결하면 어느덧 부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하여 하루에 70분씩 수행을 해야 한다.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고 40분 참선을 하고 나면 몸에 아픈 곳이 없어지고 또한 일체 정신적인 장애가 없어진다. 지금부터 실천하면 평생 건강한 몸으로 건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다. 6개월만 지나면 자연히 하게 된다. 공부해보면 정말 묘한 일이 일어난다. 모든 습의 한계는 100일이다. 불교의 이론과 교리체계를 알아 이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 적절히 적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더 살지는 알 수 없지만 불교를 제대로 알면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생길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사)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원로원장 성인(대덕사)
종회의장 혜승(선운사)
규정원장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보현(보광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사)법불교조계종종정사서실장
사무총장 본산 대성사 주지 성관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

삶은 대몽 속 이야기
〈大夢〉



新 불교사자성어

⑳ 몽중설몽(夢中說夢)

몽중설몽(夢中說夢)은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한다' 는 뜻이다. 〈대반야경〉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일반적으로는 '허황된 이야기', '두서없이 하는 말', 또는 '무엇을 말하는지 종잡을 수 없음' 을 이를 때 쓰인다. 불교 용어가 널리 애용되다 보니 단장취의(斷章取義, 뜻 전체를 취한 것이 아니고 단편적, 부분적으로 취한 것)하여 일반어처럼 된 것이다.

다음은 〈대반야경〉의 내용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보았던 갖가지 현상들은 모두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꿈도 실재하는 것이 아닌데, 꿈속의 일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상이 〈대반야경〉 596권에 나오는 법문이다. 그 의미는 꿈이란 허망하여 의존하거나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말이 변천하여 '헛소리', '횡설수설', '당치도 않는 말(胡言亂語)' 등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생 100년을 '대몽(大夢, 큰 꿈)' 이라고 한다. 멋있는 말이다. 하룻밤의 꿈만 꿈이 아니고 '인생도 꿈이라는 것' 이다. 꿈이고 소설이다. 중단편 소설이 아니고 장편소설이다.

우리의 삶은 대몽(大夢)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거나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꿈인지도 모르고 아옹다옹,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간다. 별것도 아닌 소소한 일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 조물주가 보면 웃을 노릇이다.

'꿈' 에 대해서라면 유명한 장주(莊周, 장자)의 '호접몽(胡蝶夢) 이야기' 가 있다.

"지난밤 꿈속에서 장주가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유유자적하게 날아다녔는데, 얼마나 즐거웠던지 자신이 '장주' 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불현듯 잠(꿈)에서 깨어 보니 호랑나비가 아니라, 틀림없는 인간 장주였다. 도대체 자신이 꿈에 호랑나비가 된 것인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로 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을 장주는 '물화(物化)' 라고 하였는데, 물화란 호접몽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의 구별이나 구분은 무의미하므로 물아일체(物我一體), 만물일여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다. 그대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대이므로 옳고 그름(是是非非)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기준도 없고, 또 그것은 각자의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호접몽과 같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의 쟁점은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 는 관점에서 싸운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면 그것은 입장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정쟁(政爭)도, 조선시대 4대 사화(士禍)도 모두 '강한 자기주장' , '고집' 곧 '너는 나쁘고 그르며, 나는 옳다' 는 것 때문이었다. 그 속에는 고집과 집단이기주의, 권력 유지 목적이 깔려 있었다. 한 가정이나 형제간, 부부간의 다툼도 슬프지만 이에 지나지 않는다.

장자는 "지인무몽(至人無夢)"이라고 했다. 지인(至人,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잠을 자도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한다. 허망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덕이 높은 사람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꿈을 꿀 때 우리는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악몽 속에서 헛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나서야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헛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는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가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인생 100년도 꿈이 아닐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윤창화 민족사 대표〉

"나무 위서 말은 쉽지만, 아래서는 어렵다"



격절록 강설

⑳ 제7칙 향엄수어(香嚴垂語)

[古則과 着語]

擧, 香嚴垂語云 (作什麼) "如人上樹 (還覺滿口含霜麼) 口銜樹枝 (撲落也) 手不攀枝 (便有恁麼人) 脚不踏枝 (奇怪) 樹下有人問西來意 (阿誰) 不對則違他所問 (莫道) 若對又喪身失命 (伏惟尚享) 正當恁麼時 作麼生即是" (香嚴又撲 落了也) 時有虎頭上座出云 "上樹即不問 未上樹 請和尚道" (東家人死 西家助哀) 香嚴呵呵大笑 (也是落他綣縝了也)

향엄지한(香嚴智閑, ?~898)이 대중에게 수어(垂語)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 [입 안 가득 서리를 머금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쳐서 떨어뜨려버려라.] 손은 나뭇가지를 잡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리는 나뭇가지를 밟지 않고 있는데 [기이하고 괴상하다!]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서래의(西來意)' 를 묻는다면 [누가?] (이때) 대답하지 않으면 물은 것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말하지 말라.] 만약 대답을 해도 역시 목숨을 잃게 된다. [삼가 흠향하소서.]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옳겠는가?" [향엄이 또 치는구나. 떨어져버렸다.]

그때 호두(虎頭) 상좌가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청컨대 스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동쪽 집 사람이 죽었는데, 서쪽 집 사람이 슬퍼하는군.]

향엄이 가가대소(呵呵大笑)했다. [분명 저 올가미에 걸려들었다(함정에 빠졌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樹上道即易 樹下道即難 (旁出一枝) 老僧上樹也 致一問來" (險). 설두(雪竇)가 염(拈)해서 말했다.

"나무 위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나무 아래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곁가지 하나를 냈다.] 노승(老僧, 설두)이 나무에 올랐다, 자, 한 번 물어라." [험(險, 위험하다)!]

[評唱 1]

諸方老漢得箇見處 直是千般萬計 提起為人 更不囊藏. 被蓋立箇喻 令人易曉 却倒成難曉. 何故. 為慈悲深厚. 令人轉生情解 若是慈悲淺 却較些子.

제방의 노장들은 견처(見處)를 얻으면 바로 천 가지 만 가지로 사람들에게 제기했지, 결코 주머니 속에 감추지 않았다. 비유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깨닫도록 하였던 것인데, 도리어 거꾸로 깨닫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 같다. 어째서 그런 것인가? 자비심이 깊고 두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정해(情解, 분별지해)를 내게 하는 것이 만약 자비심이 얕은 것이라면 그래도 봐줄만 할 것이다.

只如香嚴垂語道 若論此事 如人上樹口銜樹枝. 這箇香嚴老婆心切 只這問. 你若纔生樹上樹下 對與不對處 轉生義路墮在常情 卒難透得. 若是頂門上具眼的 終不向對與不對處 作解會 未舉已前 先知落處.

예를 들어, 향엄이 수어한 이 일을 만약 논한다면 마치 사람이 나무에 올라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향엄이 노파심이 간절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들이 만약 나무 위나 나무 아래,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곳에서 의로(義路, 견해)를 일으킨다면 그럴수록 더욱 더 상식적인 도리(常情)에 떨어져 끝내 꿰뚫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정수리(頂門)에 분명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끝내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곳에서 이치로 따져 알지(解會) 않고, 거론하기 이전에 먼저 낙처(落處, 핵심)를 알 것이다.

*본칙은 『무문관(無門關)』에서 향엄상수(香嚴上樹)라는 제목으로도 전한다.

*수어(垂語)란 색어(索語)와 같은 말로 스승이 제자의 역량을 시험해 보기 위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⑳ 믿음 편 20

타인의 종교 인정해야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문희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청룡영화상을 받은 배우 나문희 씨의 수상소감이다. 이 짧은 한 마디는 사람들에게 웃음뿐만 아니라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신앙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의 신앙도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독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하곤 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강을 건너고 나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법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수단은 여럿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독선이자 집착일 뿐이다. 이는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교통편이 오직 버스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행기와 기차, 자동차 등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일이다.

신앙은 구원,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수단이다.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여럿이기 때문에 어느 신앙을 택할 것인가는 오직 개인의 취향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종교적 신앙의 기본이다. 자신의 신앙만 옳다는 것은 다른 이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뱃멀미가 심한 사람에게 배를 타야만 부산에서 제주도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처럼 수단이 여럿인데도 자신의 신앙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만 알게 되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담을 여지(餘地)가 없게 된다. 종교적 독선과 편견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만 아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교를 올바로 아는 일도 아니다. 일식(一識)이 무식(無識)보다 무섭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교 내에도 피안(彼岸)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정진하는 자력의 길이 있다. 이와는 달리 절대 타자의 위신력에 의지하는 타력의 길도 있다. 근본불교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지혜의 길을 택했다면, 대승불교는 아미타신앙과 관음신앙을 비롯하여 지장신앙, 약사신앙 등 다양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었다. 구원을 향한 대중들의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이를 방편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 내의 다양한 신앙을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이 역시 내가 걷는 길만 옳다는 독선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 신앙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른 이의 욕구가 아니라 내 생각(生覺)에 바탕을 두고 걷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신앙은 잠자고 있던 나의 삶(生)을 깨우는(覺) 거룩한 행위다.

〈중용〉에는 공부하는 태도로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널리 배우고(博學) 세밀하게 질문하며(審問), 신중하게 생각하고(愼思) 분명하게 판단한(明辨) 후에 돈독하게 실천하라(篤行)는 뜻이다. 박학은 단순히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와 다른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독선과 맹신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길이다. 신앙도 널리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한 다음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적 신앙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열린 태도의 신앙을 지향한 인물이다. 신앙은 곧 선택이며, 내 선택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종교의 기본이다. 기본을 상실한 신앙은 결코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일 주 문



〈화엄경왕복서〉 특별강좌

무비 前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은 6월 24~26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화엄경왕복서〉 특별강좌를 진행한다.



제4교구 교사 연수

정념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6월 22일 월정사 경내서 '조계종 제4교구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연수' 를 실시한다.



수덕사 반결제 산행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7월 2일 가야사지에서 서산마애삼존불까지 걷는 '반결제 산행 및 공승법회' 를 봉행한다.



월초 스님 기신재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6월 2일 봉선사 청풍루서 '제85주기 월초 스님 기신재' 를 봉행했다.



출판기념 토크콘서트

법현 서울 열린선원장 스님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법구경, 읽는 그대로의 깨달음 詩〉 출판기념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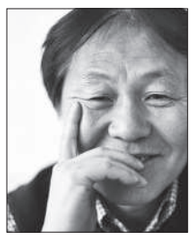


2019 교수불자대회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7월 4~6일 감포 무일선원 및 수련원서 '4차산업과 불교' 를 주제로 2019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유심작품상 이재무 · 김영재 · 이경철

만해사상실천선양회
6월 3일 수상자 발표
특별상 이상범 시조시인
8월 11일 시상식 개최






제1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들. 사진 왼쪽부터 이재무 시인(시 부문), 김영재 시인(시조 부문), 이경철 평론가(평론 부문), 이상범 원로 시조시인(특별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사상을 선양하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학인들을 선정 · 시상하는 유심작품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1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이재무 시인의 '목련' 을, 시조부문에 김영재 시인의 '바늘귀' 를, 평론 부문에 이경철 평론가의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를, 특별상에 이상범 원로 시조시인을 각각 선정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재무 시인의 수상작 '목련' 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이재무 시인은 사물이 들려주는 언어를 잘 들을 줄 아는 시인으로 시류적 시인과 달리 그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한다"면서 "대부분의 시인들이 인간의 소리에만 집착하는 요즘 모처럼 사물의 언어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 시를 위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상찬했다.

김영재 시인의 '바늘귀' 에 대해서는 "초장에 열고 중장에 펼치며 종장에 닫는 기본 보법을 충실히 지키면서도 시인 특유의 작법 태도인 상의 비약까지 잘 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경철 평론가의 평론집에 대해서는 "지난 110년의 한국현대시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체계를 세우려 했고 이는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상소감에 대해 이재무 시인은 "요새 부처의 향기가 난다는 불암산을 하루 1, 2번 오르내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아주 산을 내려가 세상 어디를 주유하든 나는 이미 내 몸 안쪽에 자리한 불암산을 오르내리며 산이 주는 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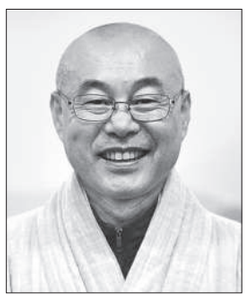
김영재 시인은 오현 스님의 그리며 수상 소감을 마무리했다. "마냥 기쁘지 많은 않다"고 운을 띄운 그는 "나의 시조를 과분하게 칭찬해주시던 그분, 오현 스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그분께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다. 슬프다. 이 상을 오현 스님 앞에 두 손 받들어 올린다"고 말했다.

이경철 평론가는 "월명사의 '도 닦아 기다리겠다' 는 불심(佛心)과 미당의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는 시심(詩心)에 무슨 차별과 등급이 있겠는가"라며 "불교의 원만하고 한량없는 인본주의 세계가 시세계의 궁극과 같음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17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행하는 불도 부산 이룰 터"

조계종부산연합회
제4대 회장 원허 스님



7월 6일 부산항 컨벤션서
이 · 취임식과 수계법회도
"지계(持戒) 중요성 알린다"

"10년 동안 역대 회장님과 집행부가 이어 온 노력을 잘 이어받아 지계와 수행으로 불도 부산이 더욱 신심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제4대 회장에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이 새롭게 취임했다. 원허 스님〈사진〉은 앞으로 부산이 수행으로 탁마하며 계율로 청정한 불도(佛都)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부산불교는 한국불교의 중심입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부산불교는 곧 핵심이자 성공의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그동안 계율을 강조하는 삼귀의 · 오계수계법회와 재가 안거를 통해 불교 기본 정신을 강조하고, 승보공양법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행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각 행사가 가진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원허 스님은 덧붙여 계와 보시바라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재가 안거기간 실천 덕목으로 추가해 구체적인 생활 지침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희 혜원정사에서는 재가자들을 위한 수행록을 제작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팔계' 를 수지하도록 합니다. 팔계 가운데 오후불식을 지켜 남은 공양비를 굶주린 사람을 위해 회향하도록 하는 것이죠. 계를 지키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돕는 겁니다. 아울러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명상 시간을 가져 불자다운 삶으로 성장하길 발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허 스님은 "그동안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도반들의 모습보고 감동받았다"며 "회장직을 수락한 동기가 바로 도반이다. 승가, 재가 그리고 모든 포교 활동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이 · 취임식은 오는 7월 6일 오후 3시 부산항 컨벤션센터 5층에서 열리는 '삼귀의 · 오계수계법회' 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4일 안국선원 4층 법당에서 '기해년 재가 하안거 수행 입재법회' 를 봉행했다. 재가 하안거 수행에는 혜원정사, 홍법사, 안국선원 등 부산에 위치한 조계종 14개 사찰 신도와 포교사단부산지역단 등 신도 1200여 명이 동참했다. 수행은 무비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사경집을 중심으로 사경하고 1일 1선행, 수행서원문 염송 등으로 진행된다. 회향은 8월 1일이며 동참 재가자들은 안거증을 받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년불자 도홍 김상지 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6월 1일, 서예 부분 역대 최연소



제38회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청년불자 서예가 도홍 김상지 작가(30 · 사진)가 대상을 수상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서예부분 최연소 작가이자 부산에서의 대상 수상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한국미술협회는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결과 김상지 작가의 작품 행초서로 쓴 '맹호연 시-봉림사 서쪽 봉우리에서 노닐고' 가 대상에 선정됐다"고 6월 1일 밝혔다.

김상지 작가는 "스승인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부모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작품 전시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에서 진행된다. 김상지 작가는 20여 년간 서예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국서도민전 대상, 청남휘호대회 대상, 대한서화예술대전 대상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건강한 노후 기원"
진안 쌍봉사, 마령면 어르신 섬김봉사활동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6월 5일 마령면사무소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위안 섬김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쌍봉사는 250여 명의 어르신에게 문화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했다. 주지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6월 치료비 지원
김선우 군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4일 법인 사무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6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는 발달지연 아동인 김선우(가명, 3) 군으로, 김 군은 근육 발달과 언어가 7개월 아이 수준으로 전반적인 발달이 지연된 상태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 군의 보호자는 "힘든 생활이지만 도움을 주셔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국내 최초 축생법당 개원
영천 천룡정사, 반려동물 축생전도법회



영천 천룡정사(주지 지덕)는 5월 26일 축생법당 낙성식과 지장보살 · 신중후불탱화 점안법회 · 반려동물 축생천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증명법사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과 삼보실천승가회 회원 스님, 천료정사 주지 지덕 스님, 강신덕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소원성취 원만발원과 극락정토회향 축원의식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증강현실기술’로 새 법문 만나다

日 고쿠라쿠지, ‘극락정토AR’ 개발… 청년포교 기대

박영빈 객원기자

법문의 내용에 맞춰 태블릿PC로 법당을 비추자 화면에 불보살과 용들이 춤을 춘다.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해 법문을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법문’이 탄생했다. 6월 1일 일본의 ‘라이브 도어 뉴스’, ‘VR 인사이드’ 등은 증강현실 법문 ‘극락정토AR’에 대해 보도했다.

극락정토AR은 일본 니이하마(新潟)현 오지야(小千谷)시에 소재한 정토진종의 고찰, 코쿠라쿠지(極樂寺)의 주지 아사다 코쥰(痲田弘潤) 스님의 발안으로 시작됐다. 코쥰 스님은 “신도와 사찰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문 방식에 도전하고자 했다”고 계기를 밝혔다. 코쥰 스님의 발안과 감수 하에 증강현실 전문회사인 비비 미디어 주식회사, 그 외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자들과 전통 불교미술작가들이 모여 만든 극락정토AR은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열린 선행 발표회를 통해 처음 선보였다.

코쥰 스님은 “특히 지방사찰에서는 신도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데도,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통해 젊은 층도 사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극락정토AR의 장점을 설명했다. 코쿠라쿠지에서 열린 선행 발표회서는 40여 명의 신도가 극락정토AR을 체험했다. 증강현실 체험을 위한 태블릿PC는 나무로 만든 전용 케이스에 담겨, 마치 창문을 통해 화면을 보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다. 개발자 측은 “사찰에서 사용하고, 또 법문의 위한 증강현실이기에 불구를 모티프로 디자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층 이탈 심각해진 일본불교
첨단기술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
AR전문업체와 불교미술작가 등
의기투합해 AR법문 대중에 선봬



일본 고찰 고쿠라쿠지 측이 개발한 ‘극락정토AR’.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해 법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 사진출처=라이브 도어 뉴스

대중이 법문에 따라 불단에 모셔진 아미타불상이나 천정에 조각된 천녀, 용 등을 태블릿으로 비추자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작동, 법문내용과 연계되는 일러스트가 화면에 나타나고 음향이 법당에 울려 퍼졌다. 15분간 진행된 법문 동안 대중의 탄성은 끊이지 않았다.

코쥰 스님은 “말하는 내용은 평소의 법문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직접 보면서 듣는 법문의 인상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극락정토AR을 소개했다. 또 스님은 “모두가 탄성을 내며 들뜬 분위기로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증강현실을 통한 법문이 향후 포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신도는 “법문에서 묘사하는 설명으론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블릿PC를 통해 직접 보면서 법문을 들으니 확실히 와 닿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신도는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부처님께 흥미를 가지게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감탄했다,

코쿠라쿠지 측은 “증강현실을 통한 ‘보이는 법문’을 이용해 신도와 사찰 간의 유대감과 관계성을 새로이 구축함은 물론, 향후 지역 관광명소로서도 극락정토AR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쿠라쿠지 측은 부처님오신날 선보였던 초기 타입을 더욱 개선해 최종 완성된 극락정토AR을 6월 중 일반대중과 미디어매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와이서 달랜 전쟁 희생 영령의 넋

日 신뇨엔, 2차 세계대전 희생자 위한 추모재 봉행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 하와이 오하후섬에 위치한 진주만은 전쟁 희생양으로 얼룩졌다. 미국 태평양 함대 주둔지인 진주만을 일본이 기습 공격해 셀 수 없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하와이와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특별한 추모재가 열렸다. 주최 측이 일본 종교법인 신뇨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뇨엔 총본산(원주 이토 신소)은 5월 3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현충일(Memorial day)를 맞아 하와이 호놀룰루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뇨 하와이 등롱 띄우기’를 개최했다. 아라모아나 해변에는 신뇨엔 불자뿐 아니라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미국 시민 5만여 명이 자리해 등롱을 띄우고 바다를 빛으로 수놓았다. 등롱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가족의 이름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적혔으며, 행사에 사용된 등롱은 모두 신뇨엔 하와이 지부에서 1년 동안 손수 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신뇨엔 하와이 지부에서는 수시아귀(수륙재)를 봉행하고 전쟁 희생 영가를 위한 기도도 진행했다.

‘신뇨 하와이 등롱 띄우기’는 21년 전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가 하와이에 방문했을 당시 전쟁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할 방법을 생각하며 추모재를 기획했고, 그 후 20년 동안 매년 진행됐다. 초기에는 하와이 케히인라히 해변에서 신뇨엔 불자들을 주축으로 진행했지만 하와이주의 요청으로 일반인을 위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7년 전부터는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뇨엔 총본산 원주 이토 신소는 “개조님과 영조인 쇼쥬신인은 개개인의 마음을 밝히는 위대한 가능성 신뇨(眞如)의 길을 개척했다”며 “오늘 신뇨의 등불은 세계평화를 추진하는 분명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하와이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진행된 일본 신뇨엔의 전쟁희생자 추모재. 수만 개의 등롱이 해변가를 수놓았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 올바르지 않다”

달라이라마, 언론과 인터뷰 중 이례적인 세계정세 언급 ‘눈길’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세계정세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지난 5월 30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와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은 세계의 여러 이슈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의견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먼저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와 티베트는 지난 수세기 동안 불교적인 교류를 이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러시아 연방에 속한 칼미크, 부랴트, 투바 공화국은 몽골계 주민들이 대다수로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믿어왔다.

이어 달라이라마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불교와 접촉해 왔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서간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람살라의 거처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한편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가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할 권리는 없지만, 내 견해에서 그의 여러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우디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매각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의 정책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민주주의의 함양과 올바른 교육이 세계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대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다. 사람들이 적절하게 생각하고 교육받으면 서로를 반목하고 죽이려 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EU(유럽연합)의 각국은 지난 세기동안 서로 반목하고 죽여 왔으나 각국의 이익보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하는 현실적 접근을 통해 EU를 결성하고, 지난 수십 년간 회원국들 간의 전쟁과 살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해 “나라를 지도하는 큰 책임을 맡은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단기적인 선거결과만을 생각지 말라”고 충고했다.

달라이라마는 2011년 정치적 권한을 망명정부에 모두 이양한 이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삼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정세에 대한 언급은 이례적인 발언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무슬림 장관들 일괄 사퇴

‘부활절 테러’ 수사 박차 전망

지난 4월 ‘부활절 테러’로 종교 갈등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무슬림 출신 장관들이 지난 3일 집단 사퇴했다.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위해 무슬림 출신 장관들이 물러난 것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리샤드 바티우딘 상공부 장관 등 9명의 무슬림 출신 장관급 인사가 사퇴했다. 사퇴 원인으로 “자유로운 부활절 테러 관련 조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바티우딘 장관은 그동안 부활절 테러범이 소유한 공장에 탄약을 공급하고 체포된 용의자를 풀어주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티우딘 장관은 전면 부인했지만, 여론은 그의 사퇴를 강력 촉구해왔다. 스리랑카 불교 승려 아투랄리에 라타나는 무슬림 장관급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불교도가 시위에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도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고, 결국 이들은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들의 사퇴로 ‘부활절 테러’ 사건의 진실 규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퇴한 라우프 하킴 수자원공급부 장관은 “무슬림은 부활절 테러 후 용의자들을 체포하는데 협력했지만, 현재 증오 범죄 등의 희생양이 됐다”고 외신들을 통해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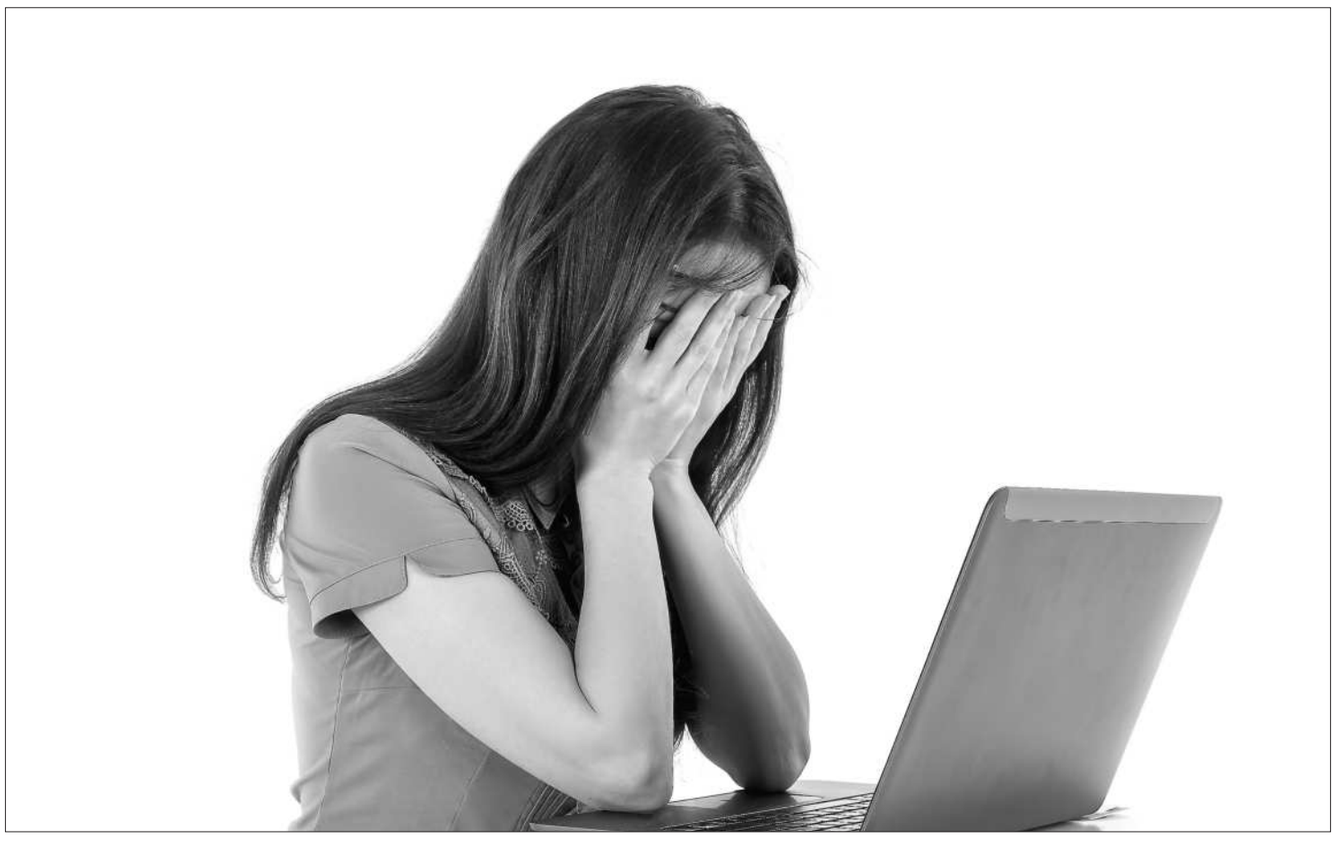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해야 한다” 의무감 차분히 드러내보자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⑪ 거절어 · 명령어 글쓰기



- 살면서 아직 누구에게도 토해낼 수 없었던 ‘싫다’로 마치는 언어나 감정 쏟아내기.
-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싫어!’로 마치는 말을 있는 대로, 빠른 속도로 써보기.
- 거부하고 싶은 것을 거부하지 못했던 때를 찾아서, 그 당시 하고 싶었던 거절과 불만의 언어를 따박따박 드러내기.
- 최대한 자신의 감정이 강하게 묻어나는 짧고 단호한 싫어! 글쓰기. 그때의 감정이 활자에 고스란히 묻어나올 것처럼 적는다.

사회환경 따라 줄어든 거절
별 볼 일 없음을 경험하라
의무감에 휩싸였던 기억도
스스로를 옭아매는 장애물

밥 먹기 싫어! / 공부 싫어! 똥통에나 처박아 버려 / 아침에 세수 하기 싫어 죽겠어 / 욕 듣기 싫어 / 나 말보지 마. 듣기 싫어 / 그냥 싫어 / 나한테 그런 표정 짓지마 / 당신 같은 사람, 죽어도 보기 싫어 / 엄마 싫어. 내 인생 갖고 왜, 당신 멋대로야!

‘싫다’ 거절어 돌아보기

‘싫다’는 말을 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다. 동네 친구들과 비석치기에 한창 열 올리고 있을 때 “밥 먹어”라고 부르는 소리에 대놓고 ‘싫다’고 할 수 없었다. 학교 가야한다는 말에 오만상을 찌푸리면서도 허깨비처럼 기신기신 일어나야 했다. 학원가라는 말에 “싫다”고 하지 못했고, 일 좀 똑바로 하라는 말에 “일하기 싫다”고 하지 못했다. 엄격한 위계 속, 듣기 싫은 말 앞에서 “싫다”고 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내 멋대로 살리라, 그런 날이 오리라 하면서 살다보니, 어느 한 때 “싫어!”라고 속 시원히 질러대본 기억이 없다.

그러는 동안 내면의 ‘싫다’는 세월 따라 상황 따라 ‘맞습니다’나 ‘괜찮습니다’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가족의 행복, 조직의 안녕, 규범의 논리 앞에서 거절과 저항의 언어는 일찌감치 기절했거나 곰뱅이 젓갈처럼 물리화학적 변이를 일으켜서 내면 어딘가에 썩어문드러져 있는 건 아닐까. 심지어 당신은 “싫어!”라고 꽥 소리 지르는 그 시절의 강렬하고 싱싱했던 감정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어른이 되어 내가 이른바 ‘꼰대’ 세대가 됐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분노 표현의 배후에 지난 세월 꾹꾹 억눌렀던 ‘싫어!’들이 있지는 않을까.

“싫어!” 의식의 어느 구석에 흉터나 사마귀처럼 박혀있을 충동적 거부의 언어. 모르긴 해도, 생애 아득한 원시의 시절, 엄마 젖을 빨면서 당신은 마음껏 싫다고 할 수 있었다. 그 시절의 옹알이 중 상당 부분은 ‘싫어’였다. 배가 조금만 부르면 고개를 내저었고, 잠 오는 데 시끄러우면 오만상을 찌푸리거나 울어댔다. 공기나 습도가 조금만 불편해도 젖먹이였던 당신은 단호히 싫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런 때가 있었다. 내 생애 그 많던 ‘싫어’는 어디로 갔을까.

붓다는 삶 자체가 ‘불만족’이라고 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싫어’인 것이다. 불교 공부는 그 ‘싫어’의 실체를 보고 확인하자는 공부일 수도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모든 순간 껴안기〉에서 참된 행복은 불확실한 것을 사랑하기, 안전하지 못함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실은 ‘싫은 감정’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거나 주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싫어’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불가측성 따위의 내적 그림자 속에 중추신경처럼 자리 잡고 있는 중심 감정이다. 내 인생에서 그 견고한 감정을 적출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서 확인하고, 그것의 실체 없음, 그것의 가벼움, 그것의 별 볼일 없음을 몸으로 경험해야 한다.

세상에는 의외로 ‘싫다’를 허용하지 않는 동네가 많다. 상하관계가 명확한 직장일수록 조직 전체가 ‘싫다’ 표현의 불모지대다. 요즘은 차라리 군대에서 ‘싫다’가 청년기 수염처럼 잘 자라고 있기도 하다. 어쩐지 ‘싫다’ 표현의 허용지수가 높은 곳이 좋은 직장일 것 같다. 내가 명상 안내해왔던 가정폭력피해쉼터 여성집단원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가장 격렬히 저항했던 조건으로 ‘싫다’가 허용되지 않은 관계를 꼽는다. “당신 그러는 거 싫어!”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마!”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가정.

폭력은 인간의 근원적 감정표현이 불편해지는 조건을 먹고 자란다. ‘싫어’ 글쓰기는 그 근원적 감성의 포박을 풀어헤치는 작업이다. 왜 풀어헤쳐야 하는가? 당신의 내면이 그런 포승줄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많은 성인들이 어쩌면, 싫음에 대해 싫다고 질러 대지 못하고 성장해왔으므로. 알게 모르게 당신도 그 ‘싫어’를 허용하지 않는, 상처의 세습자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당신 안에 곪아 있는 ‘싫어’를 손수 부려놓고 살펴보라.

‘해야 한다’로 마치는 단문쓰기

내가 만약 한 마리 연어라면 인생은 의무감으로 가득 찬 폭포다. 알 수 없는 원리로 생명이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삶은 명령하고 있었다. 나는 끝없이 임무를 부여받는 특수부대원처럼 우주의 원리에 따르고, 부모의 지시에 따르고, 인연의 요구에 매인다. ‘해야 한다’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유전자와 신경 세포를 점령했다. 의무감이라는 폭포. 이것은 내가 이번 생을 살게 한 천부적 동기이자 상속 받은 강제력이다. 우리는 미처 그 의무감을 까맣게 잊고 살기도 한다. 물속의 고기가 물을 잊고 살 듯이.

내 안의 명령어들,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한다’를 주도적으로 선택한 적 있던가. 아침에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나는 일, 밤이 깊어지면 잠을 자는 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 사랑을 하는 일.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 아니면, 당신의 어딘가에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천부적 명령어인가?

천부적 명령어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당신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공부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 법규 지켜야 한다, 음주운전 하지 않아야 한다, 싸우지 않아야 한다…. 이뿐이던가. 당신은 스스로 명령어를 학습하고 재생하는 인공지능형 명령권자가 된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해, 승진해야 해, 친구관계 유지해야 해, 성과 올려야 해, 건강관리 잘 해야 해, 잘 놀아야 해, 어른 노릇 잘 해야 해, 돈도 벌고 잘 놀고 잘 써야 해…. 그리고 그 명령어는 언젠가 스스로를 겨눈다. 마치 정면의 적을 겨눈 저격수의 총신이 360도 휘어져 자신의 뒤통수를 겨누는 것처럼.

군인이었던 그는 45년 전 베트남 전쟁터에 있었다. 명령이 곧 생사와 직결되는 전쟁터. 그곳에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잠 속에서도 ‘해야 한다’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아군은 명령으로 죽이고 적군은 총알로 죽였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세월, 그는 노인이 되어 옛 전적지를 찾게 된다. 15일간 배를 타고 갔던 그 나라를 4시간 비행으로 도착했다. 버스를 타고 전적지를 다니던 그는 일행에게 자꾸만 화를 냈다. 계속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질러댔으며, 양 손을 휘휘 내저었다. “이 새끼들아, 차를 여기서 돌려야 한단 말야!” “바짝 엎드려, 코가 깨지게 엎드리라고!” “커브길 안 보여! 거기선 바짝 기어야 한단 말야!” 그는 일행에게 거듭 소리를 질러대며 명령했다.

전쟁 같은 삶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자율이나 자유, 평등, 균형, 평화와 같은 정서라인이 파괴된 전쟁터는 당위나 명령어가 총알처럼 난무한다. 당신의 삶은 어떤가. 그 삶 또한 혹시 전쟁 같은 느낌이라면, 당신은 명령어의 폭포에 심신이 절어 있을 수 있다. 국가가 명령하는 시대, 직위가 명령하는 회사,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사회, 스스로에게 자꾸만 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이웃, 친지, 나 자신! 이것이 당신의 상처든 아니든 따져볼 일은 아니다. 깊은 내상(內傷)은 의사에게 가봐야 알 수 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의무감은 선량한 동기를 갖는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범죄조차도 사사로이는 선량한 동기 아닌 게 없다지 않는가.

하지만 판단은 당신 몫이 아니다. 의무감에 찌든 당신의 의식을 햇빛 아래 드러내보는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처방이다. 내 안의 명령어. 이것에 포박된 내 의식들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감정조절 불량 상태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주변을 피폐하게 한다. 45년 전, 저 참전용사처럼.

- 나의 가족, 친지들을 둘러싼 관습적 명령어, 들은 대로 적어보기
- 내가 경험한 사회생활 중 명령어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 표어 적어보기
- 나에게 ‘~해야 해’라고 했던 사람 이름 혹은 인상착의와 내용 적어보기
- 내 기억 속 명령어, 하나하나 떠올려 적어보기
- ‘이것만은 해야 해’라고 당연시하는 나만의 의무감 드러내보기

‘해야 한다’는 인간의 천부적 의식 비중이 크다. 하지만 자율, 자유, 평등, 평화의 측면에서 보면 ‘꼰대 의식’에 가깝다. 붓다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에 방점을 찍는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 기반한 자애(慈愛)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같은 의무적 강제는 심정적으로 이미 폭력이다. 물론 모든 종교 안에 놓여 있는 계율조차 생략하자는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 근세사 중 의무적 규범이 무성했던 시기를 우리는 평화나 자율의 시기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너무도 많은 ‘해야 한다’들이 적들의 총구처럼 스스로를 겨누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이 듣고 살아온 ‘해야 한다’들을 노출해보라.

남자라면 힘도 세야지 /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해 / 영업하려면 술은 기본으로 잘 마셔야 해 / 어른이 되면 결혼해야 해 /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하는 거야 / 아프면 잘 먹어야 해 / 공은 이렇게 던져야 해 / 어른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일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해….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대행 스님

이 마음의 도리는 이 우주를 굴릴 수 있는 그런 도리입니다

마음 도리 모르고 몸을 벗는다면…

질문 우리가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르고 몸을 벗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서운 도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으로만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리를 모르고, 둘이 아님을 모르고, 둘 아닌 데서 참나라는 것이 있는 거를 모르고, 우주 전체와 내가 더불어 같이 있는 거를 모를 때, 너무나 애석한 것은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이 옷을 벗는다면 식(識)만 있지 분별이 없어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식만 있죠. 그래서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금방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었다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부닥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식만 남았으니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시려면 지금 아주 오관을 딱 가려 보세요, 눈도 막고 귀도 막고 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은 눈 아닌 눈이 있어야 하고 귀 아닌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죠. 그리고 책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뭐가 있지, 도대체 식만 남아 가지고서 아니,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 도리를 몰라요. 집이 어떤 집인지, 요만한 굴속인지 큰 집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 굴속도 크게 보이죠. 그리고 기와집으로도 보이고 아주 그 보석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 눈이 없다 이겁니다. 욕심에 꽉 찬 그 눈은 바로 식만 남아서, 생시에 살던 그 식으로서, 그 좋은 것만 가지려고 했던 그 식만 남아서 그저, 하다못해 돌 틈을 봐도 그 돌기둥으로 보고 돌집으로 보고,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가니 그렇게 될 수밖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지금 살았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는 없죠. 그저 값싼 말로, 붙을 데가 없는데 뭐 붙을 게 있어서, 내가 없는데 뭐 붙을 게 있느냐고 이렇게들 허영 말해 버리고 마는데 그 무서운 도리는 누가 처리할까요?

한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노파가 병이 들어서 가다가 엎드러져서 헤맸습니다. 나는 그런 꼴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구더기 눈에는 똥만 뵌다고, 여북하면 중얼중얼하고 갔겠습니다마는 말이에요. 그래 인제 가다 보니까 엎드려서 저거 하더니 고만 다 죽어 버리는 겁니다. 순간, 죽는 그 순간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때의 그 식이 아무 분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금 거기다가 혼합을 시켜서 거기 다시 붙여 놓은 겁니다, 그걸 잡아서. 그래야 무슨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들, 그래도 그 집에 가서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 집으로 찾아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본 것만이라도 인연이야. 그 즉시 본 게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닿은 게 아닌가. 그 또한 누군가. 옛날에 내가 모를 때 내 모습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는 뚜벅뚜벅 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한 오 분 죽더니 깨어나더군요. 그래서 가는 걸 봤습니다.

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이 밥을 했으면 밥을 해 먹고서 그릇을 닦아서 다 마무릴 지어 놔야 밥을 해 먹고 치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도리가 아주 작고 협소하지마는 이 우주를 굴릴 수가 있는 그런 도립니다. 요 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방편이든 큰 방편이든 그것은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하도 버릴 게 없고 진실이기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보아 왔고 그랬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죽으면 재를 이렇게 놓거나 쌀을 놓거나 그래서 뭐가 됐나 하고 볼 때에 새 발자국도 있고 뱀이 기어 간 것도 있고 또 사람 발자국도 있고 별의 별 발자국이 다 난다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이 식만 남아서 자기가 분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눈 가리고 귀 막고 코를 막아서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흑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밝은 불빛을 못 봐요. 내 마음의 불빛을. 불빛이 없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저 토끼굴로 안 들어가나 개집으로 안 들어가나, 뱀굴로 안 들어가나 까치굴로 안 들어가나. 또 그 집안의 소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소가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분간을 못하니 어쩌다가 인연이 돼서 사람 만나면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분간을 못해서 또 좌천이 되고, 좌천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 차원대로 그렇게 또 울고 아프고 부닥치고 서로 모였다가 또 헤어져서 또 그렇게 되시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의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눈 가리고 코 막고 귀 막고 다 이렇게 아주, 송장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분별하겠습니까? 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다 하면은 썩지도 않은 그 송장이 왜 보지 못합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선천적인 식만 남아서 이리저리 이렇게 자기가 분간을 못하고, 캄캄하니까, 암흑인데 어떻게 발을 한 발 떼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의 그 뜻은, 만사만생이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원리가, 누구나 잘되고 싶지 못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되고 싶어서 못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이 없고 귀가 없으니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에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 도리를, 이 만법의 이치를 참답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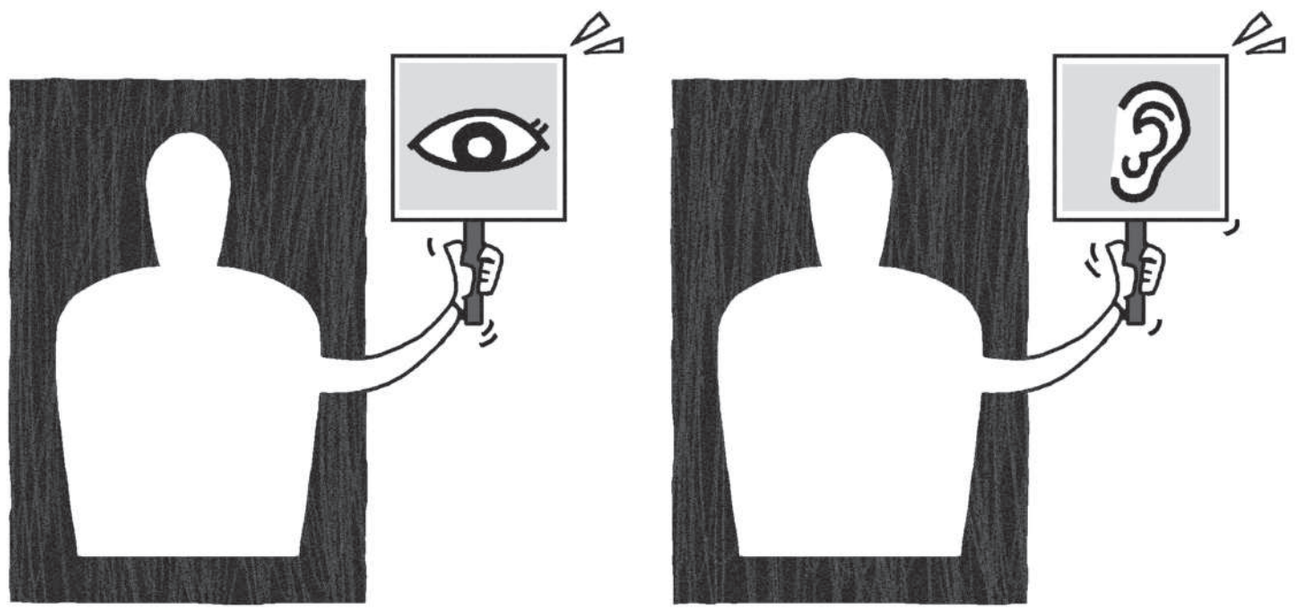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싶어요

질문 평소에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몸이 좀 아프고 보니 자신감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엉금엉금 기다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에서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와요. 나와서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일어났어요. 그것이 꿈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꿈같이 그렇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실제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한번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누가 꼭 수만 명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지극하든 지극하지 않든 간에 한번 내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으니 그거를 어떡하겠습니까. 벌써 내가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그냥 말로 하는 거보다도 진짜 이게 거짓을 한다면 그 거짓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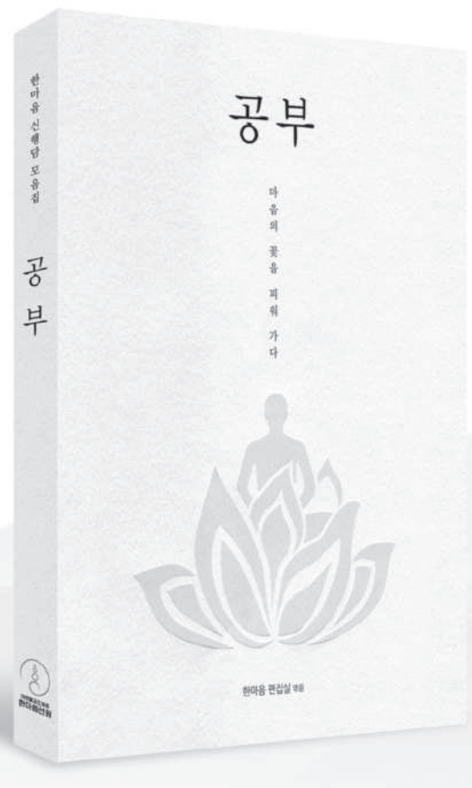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에요, 묘지가 그냥 아파트같이 쫙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많은 묘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묘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했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죠.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깐.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립이 됐고, 그러고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나 할 일만 하면 됐지 그 사람한테 고맙다 뭐, 어쨌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남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고,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면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 공부에는 어긋나는 짓이죠. 평소 때에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대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게 한마음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이 깊은 뜻을 얼마나 해야 알아들을는지 모르지만 우습게 생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건 바로 영원한 도반이자 친구예요

☞ A17면에서 계속

각하진 마세요. 여러분 불성이 수억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진화시켜서 이렇게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이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모르시죠. 꼭 알아야 돼요. 못났든 잘났든 말이에요. 한 생 살아나가는 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두 주어진 모습, 주어진 삶, 이 주어진 어려움. 이런 거를 누구에다 항거를 합니까? 자기가 몰랐을 때 모두 그렇게 잘못 행한 것이 더 많지, 잘 행한 것이 더 많겠습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정수에 정수봉이 있는데 그 정수봉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라고요.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한 것대로 들어가면 바로 앞서 한 건 없어지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가르치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냥 관하면 그냥 거기에 입력되면서 앞서의 입력은 자꾸자꾸 없어지니까 소멸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든지. 하다못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죠. 왜 없어지느냐. 바로 그 당시에, 관하는 그 당시에 바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건져지는 거니깐. 그냥 없어지면서 그게 건져져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죠. 무명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이 마음공부라는 게 참 위대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때 그러니까 스물몇 살이었어요. 그때도 그냥 쓰러지니까 이만한 저, 소똥 있죠? 소똥에다가 머리를 박곤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소똥이다 뭐다 그럴 능력이, 힘이 있었으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긴 했는데 누가 와서 그냥 그 개천에다가 놓고는 닦아 주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저리에는 전부 갈대나무가 그냥 빽빽하게 들어섰었어요. 그 갈대나무조차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마음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통하질 않지만 알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갈대 속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섰더군요. 거기서 주동을 해서 나를 씻겨 준 거예요. 물론 보기에는 씻어지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다 씻어 주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스스로 가서 머리를 전부 씻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으로 가서 머리를 씻었는데, 그에 앞서 모두 와서 머리를 씻어 줬다. 씻어 주니까 내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씻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씻어 준 것도 아니다. 단, 일체제불도 한마음이요, 왜, '일체제불의 마음' 노래 부르시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마음이 일체 만물까지 더불어 같이 하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깐 일체제불의 마음이 관찰을 해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이끌어서 진화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나무 이파리 하나라도 자기가 참, 나무가 악신으로 되질 않고 착한 목신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나무는 다 응신으로 화해서 그렇게 진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바다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보림해서 그 어떤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다 바다에 물 흘러가듯, 흘러 들어가듯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건 다 정화가 된다, 그 물이. 왜?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걸. 그럼 그게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세세히 알고 본다면 그게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물이나 모두 그 세균덩어리 모두 그런 거죠. 그런데 정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나무가 크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산에 걷다 보면 요만한 떡이파리가 하나가 나와서 나불나불거리죠. 그것도 자기 생긴 대로 먹어요.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늠름하고 과감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 진정한 마음이라면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겠어요? 자기 자성을 왜 자기가 못 믿느냐고요. 그리고 또 못 믿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하면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죽고 사는 그거를 생각해서 내가 무섭다, 두렵다 이럭하고선 물러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육신에 치우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이에요.

> 관하면 뭐가 나오느냐.
>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조카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데…

질문 요즘 저의 가까운 주변만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조카도 작년부터 좀 이상해져서 천도재를 한 번 지냈는데 크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요.

답변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가난과 병고와 우환과, 이 자식들을 이끌어 가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괴로움이 한두 건이 아니죠. 요새 가만히 보면 머리가 상스럽지 않게 바깥에서 유전이 오든, 안에서 인과로 인해서 벌어지든, 영계가 들고 영계가 안에서도 일고 이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 신경이 급박해지면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생활을 하다가 뭐 회사가 망했다든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그냥 지친다든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든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가정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그 문제를 다 물리치고 녹이고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즉 말하자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한다!'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게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관한다. 기도가 아니라 관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관하면 뭐가 나오느냐. 인과응보가 무너지고 습이 녹아지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이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인제는 둘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놨는데 웬만치 해 가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아,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이죠.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병을 고쳐 주려면, 이 더군다나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어, 이건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에이고,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럭하고….' 아, 요런 생각들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고런 생각들을 하니 이게 떨어집니까? 뭐가 붙었습니까?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 하나 넣은 거와 같은데. 항상 그렇게 일러 드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 딴 영계가 들어왔다 합시다.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럼 이게 물 한 그릇이, 그대로 물 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와서 딴 영계가 내 집 주인 노릇을 하더라도, 바로 내가 부족한 것도 내가 부족한 거지만 모두 한 그릇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데 들어갔으니까 천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들어가도 '아이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고, 무슨 내가 이렇고 무슨 누구가 이렇고….'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여기 들어갔으면 벌써 한 그릇이에요. 한 물이에요. 영에다가 영을 넣으니까 몇이 됩니까? 예? 그냥 영이죠? 스무 개를 넣으면 또 더 두드러집니까? 그냥 영이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입니다. 고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그 고통을 받고 앨 쓰는 거예요.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십니까.

영과 영이 열 개가 한데 합쳤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가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야, 그냥. 그렇게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다가 그 속의 주인공을 탁 잡아 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만 번 천 번 드리는 것보다 고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땀 흘리고 돈 벌어다가 허탈하게 쓰는 법 좀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지 올바르지 못하게 쓰는 것은 귀신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장난이나 한가집니다. 여러분이 못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그래서 거기서 '그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주인공만이 그 속의 그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뜻으로 그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만나지 않았어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그게 먼 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우리는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니에요. 사방은 툭 터져 있어요. 고거를 하나 얘기해 드렸으니 인제는 모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들면서 중용을 하세요. 안팎이 다 들리는 그런 활용 말입니다. 그것이 중용이에요.

부모님이 저만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법회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부모님이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당신들 뜻대로 제가 따르지 않으면 혼내시고 그러니까 갈수록 서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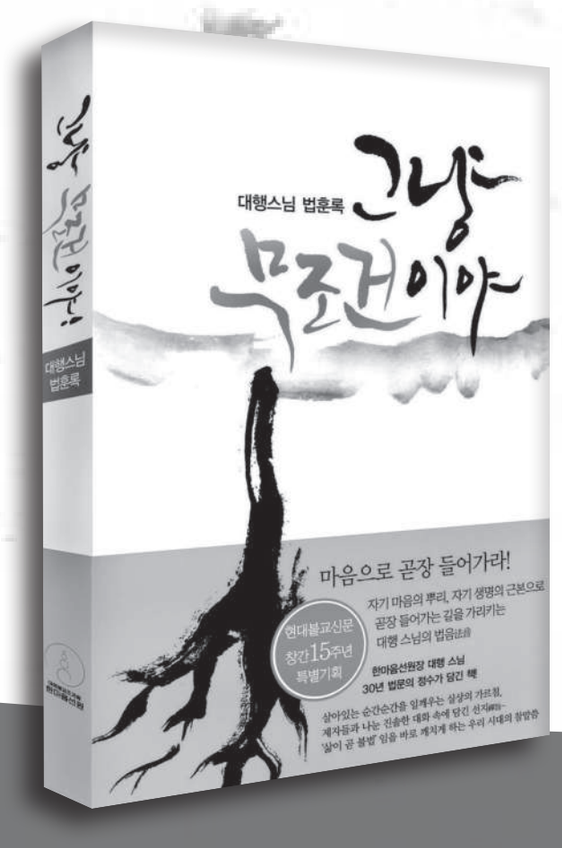
답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따지고 살려면 못 살아요. 여기 천불이 나서 못 사니까 아예 전폐해 놓고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그냥 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살 뿐이에요, 그냥. 그 걸 일일이 따지고 일일이 하지 말고 속으로만 '이게 옳은 거다.' 하면은 여기다 맡겨 놓고 옳게 걸음을 걷고 그냥 갈 뿐이죠. 뭐, 왈가왈부할 거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갈등도 많고. 학생들은 더 갈등도 있을 테고. 어떤 땐 부모가 몰라서 자식을 좀 더,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젊은 세대로서 앞으로 옳게 보고 말하는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될 텐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말을 그냥 무조건 자르고 무조건 그냥 박살을 내거든요,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바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건 그 영원한 도반이면서 친구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은 그 사람의 그릇대로 존중을 하고 내 그릇은 내 그릇대로 존중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식이라는 데서 그냥, 아랫사람이라는 데서 무조건 자르고 이런다면 이거 화목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인정이나 사랑도 샘솟지 않고 말이에요. 자꾸자꾸 차지기만 하고 냉해지기만 하고 말입니다. 따뜻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 엄마나 아버지가 그럭하시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아, 저 엄마 아버지가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신밖에 없다.' 하고 이렇게 거기다 맡기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스스로 또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커지고 그런 마음이 차츰차츰 적어져서 나와 그 부모가 대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이런 거는 다 거기다 놔 버리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돌아가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자기가 다스리는 법이에요.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바른 소통은 '역지사지'서부터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0년 전 만들어진 '인터넷'
소통 패러다임 혁신 가져와
편안함 · 분열 원인 함께 제공

커뮤니케이션, 사회 유지 요건
개인별 소통 능력 배양 필요

원효 스님 저서 〈십문화쟁론〉서
커뮤니케이션 통한 소통 강조
현대 사회도 이를 귀감 삼아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스위스 유럽 입자물리학연구소(CERN)에 근무하던 물리학자 팀 버너스 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연구자들끼리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인터넷(월드와이드웹)' 을 세상에 출현시켰다.

이제 인터넷은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발전하여 인간세계를 촘촘히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보수용 방식과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놓았다. 발전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 구석구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공동체에 균열과 분산의 양상이 초래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다.

신문과 텔레비전이 정보의 흐름을 대중적 방식으로 주도했었다면, 인터넷은 이를 개인적이고 파편화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 대중미디어 시대에는 TV리모콘 조작만으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던 반면, 인터넷 기반의 개인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다닐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변화된 정보수용 방식으로 인해 세대 · 성별 · 직업 등 계층 간의 정보 격차가 커지는가 하면, 사회공동체가 공유하는 거대담론이 해체되고 있다. 또 사건의 맥락이 상실되면서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다가올 초연결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지금 인간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과 상생 체계를 견인할 방안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집단의 구조와 속성을 토대로 인간의 태도변화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테오도어 뉴콤(Newcomb)은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체계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분산적 정보수용 시대에 인간 공동체의 균형과 상생을 보존할 하나의 방안이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학술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인지적 요소인 지식과 행동적 요소인 실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커뮤니케이션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다. 이는 타인의 의도 평가 및 상황 추정과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선택을 통해 자신을 상황에 빨리 적응시키는 능력인 행동적 융통성이다. 행동적 융통성은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 얘기하고, 상대가 수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이 같은 인간의 포괄적 능력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서 강조해왔다.

〈십문화쟁론〉에서 원효 스님은 서로 껴안고 받아들여 화합하면, 타자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소통을 통한 만남, 소통을 통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통합과 상생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설했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파편화된 정보 수용 방식이 초래하는 인간 공동체의 균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이미 1000년 전에 설파하였다.



마음산책

생명을 살린 보시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6월이 되면 할아버님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보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죠." 이 거사의 조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 거사의 조부는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었다. 군인들이 저녁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갔다. 이 씨는 밤새 유치장 안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나도 이제 죽었구나. 내일이면 전쟁터로 끌려가든지, 재산을 빼앗기겠구나. 큰일이다"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완장을 찬 청년 하나가 철창에 나타났다. 그는 "이ㅇㅇ!"하고 이 씨의 이름을 불렀다. "이ㅇㅇ씨는 나오시오"라고 했다. 사람들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가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낮은 목소리로 "ㅇㅇ회사의 회장님이시죠"하고 확인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청년은 이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회장님이시군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라며 청년은 눈물이 글썽였다. 청년은 가난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고, 대학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입학금을 낼 돈이 없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전무했다.

속을 태우다가 청년은 우연히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무조건 이 씨를 만나기 위해 회사로 찾아갔다.

청년은 회장인 이 씨를 만나자 마자 이렇게 호소했다. "저는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합격하고도, 돈이 없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 좀 살려 주세요!"

청년은 입학금을 마련 못해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그냥 삶을 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청년의 호소를 들은 이 회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입학금을 내주었다. 그리고 비서에게 청년이 대학을 다닐 동안 등록금을 도와주라고 지시했고, 청년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청년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이 씨에게 이 같이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장님께서는 어려운 학생들 부탁이라면 무조건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회장님 같은 분은 꼭 사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몰래 문을 열어드릴 테니 어서 빠져 나가십시오."

청년의 도움으로 이 씨는 밤새 서울을 빠져나왔고 살아남았다. 이에 대해 손자 이 거사는 조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조부님은 위기를 겪고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나를 살렸다. 나는 덤으로 살고있다' 며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조부님은 평생 많이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은 불자 가문이 됐습니다."

조부의 뜻을 이어, 이 거사의 아버지도 이 거사도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꾸준히 도와주고 있다. 돈이 많다고 저절로 남을 돕는 것은 아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바라는 바 없이, 조건없이 남을 도와준 마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자손들에게 지침이 되었다. 금수저보다 귀한,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이렇게 아무 상이 없이, 보시바라밀을 소리없이 행하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들 덕분에 불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社 說

새로운 청소년 포교 전략 시급

학교 내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으며,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른바 탈학교화에 대한 대안이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지도교사의 가산점 폐지와 교사 업무 부담 금지, 학생기록부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청소년 단체, 특히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등의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같은 불교계 청소년단체는 10년 넘게 학교를 기반에 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간접포교는 청소년 불자 양성의 큰 힘이었다.

탈학교화 정책에 대비해 불교계는 청소년 쉼터나 대안학교 등을 통해 새로운 간접포교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서울에만 40여 곳이 지정된 단기 위탁형 대안학교 중 유일했던 나란타대안학교가 폐지 되는 등 불교계의 대응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찰 유휴부지와 퇴직 불자교원 등을 활용한 방안이 필요하다. 인허가가 필요한 대안학교 외에도 지자체와 연계한 청소년 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간접 포교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확보하기 위해 자기성장 프로그램을 불교계가 꾸준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불교의 가르침에 기반한 인성교육, 봉사활동, 마음치유 등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간접 포교가 가능하다. 한국불교는 위기다. 이 위기는 청소년 불자들의 감소에 있다. 이들의 고충을 어루만지는 대안학교, 쉼터 개설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보다 역주해야 할 것이다.

'녹색불교', 한국불교 새로운 화두

바야흐로 '필(必)환경시대' 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올해의 소비문화트렌드로 '필환경' 을 꼽았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필환경적 소비는 '현상' 이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 과 '비거니즘' 이다. '제로 웨이스트' 는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 배출을 최소하며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다 '비거니즘' 은 완벽한 채식이라는 '비건' 을 넘어서 자연과 동물보호, 재활용 등 전반적 생활 습관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세계적 현상인 '필환경' 을 필두로 한 '제로 웨이스트' 와 '비거니즘' 은 바로 불교와 맞닿는다. 불교는 과도한 소유를 경계하며 순환적 삶을 강조한다. 승가의 분소의나 발우공양의 전통은 이를 잘 보여주는 문화다.

불교환경연대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 '녹색불교 만들기'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사찰 발굴 및 협약 △환경법회 및 교육 △버드나무 방생법회 △비닐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다이어트 △사찰 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세부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슈 파이팅' 에 주목했던 환경 감시자 역할을 넘어서 대안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때 '불교는 곧 환경운동' 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다. 당시 사회적 여파는 분명했지만, 이것이 운동의 대중화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불교환경연대의 '녹색불교 만들기' 는 '종단 · 사찰 · 불자의 녹색화' 라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녹색불교는 이제 한국불교의 새로운 화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 종 공 고

명덕사	주지	해륜	대덕사	주지	혜법	흥원사	주지	청봉	영월암	주지	상운	관음정사	주지	탄석
벽조사	주지	고우	홍법사	주지	지명	만덕사	주지	운성	연화사	주지	덕운	용화정사	주지	공정
묘련사	주지	법문	세심사	주지	광혜	법정사	주지	법연	정족사	주지	진허	덕행암	주지	자원
보성사	주지	지성	용주암	주지	혜산	조동종	법명	도명	정각사	교임	관음행			
안양암	주지	법경	담연정사	주지	담연	정암사	주지	선담	성관사	법명	정묵			

위 사찰주지 및 법사 교임은 승가본연의 종단운영 및 사찰행정경영에
본뜻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번길 103

눈 두는 곳마다 '나'를 본다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④ 전남 곡성 천태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나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늘 동분서주하고 있다. 찾아야하는 '나', 그것은 힘겨운 시간 속에 있을 때 더욱 간절해진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목탁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풍경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한다. 숲길 끝에, 산자락 끝에, 물가의 끝에 서는 것이다. '끝'에 서보는 것이다. 끝에 서서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나'를 보고 싶은 것이다.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의 생각이 필요 없는 곳에서 오직 '나'를 찾는 길을 걷는 것이다. 힘겨움 속에 있는 이 시간, 어딘가의 끝에 서고 싶다면 눈 두는 곳마다 '나'가 시작되는 곳, 아미산 천태암으로 간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대사당 노숙의 기본 자세

B4 책세상
혜담 스님의 〈진리란 무엇인가?〉

B5 문화
국립공주박물관 '마곡사, 어제와 오늘' 展

B6 학술
"김천 수도암비, 신라 명필 김생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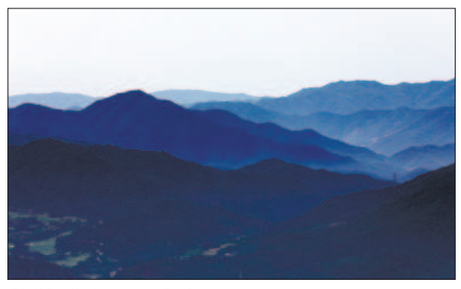
불국토 아미산의 유일한 현존

'곡성 아미산 천태암' B1면에서 계속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등 너머로 노을이 물든다. 천태암은 많은 비경을 품고 있다.


천태암 극락보전.


16나한을 모신 나한전.


천태암에서 보는 모후산.

하늘과 가까운 땅

전라남도 곡성, 아미산 정상 근처에 암자가 하나 있다. 천태암이다. 조계종 화엄사 암자다. 해발 500m, 땅에서 조금 멀어진 땅, 하늘과 좀 더 가까운 땅. 평소에는 자주 가볼 수 없는, 익숙지 않은 자리다. 길을 오르면서, 하늘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시간도 계절도 언어도 걸음도 그리고 눈높이도 달라진다. 올려다보던 산들이 눈 아래에 놓인다. 조계산, 모후산,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곡성군을 흐르는 보성강이 또한 한눈에 들어온다. 운해와 운해 사이로 능선들이 촘촘하게 늘어서고, 강물은 대지의 곳곳을 정성스럽게 적시며 흘러간다. 산과 같이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산, 강과 같이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강 그리고 그 사이에 놓였던 나, 그 모든 것이 한 눈에 들어온다. 비경이다.

암자에 닿는 순간, 걸음의 속도와 간격부터 달라진다. 속도는 필요 없고 간격은 나의 뜻이 아니다. 시간은 시계 속에 있지 않고, 계절의 깊이는 지구의 공전이 아니라 처마 끝에서 궤도 없이 흔들리는 풍경소리가 만들어낸다. 언어는 각자의 것으로, 그것들은 각자의 독백을 위한 것일 뿐이다. 숲속 나무들과 새들과 하늘과 법당의 단청, 불상과 탱화, 텃밭을 오가는 다람쥐와 보이지 않는 곳을 채우고 있는 작은 벌레들까지 모두 독백으로 서있다. 모두는 독백만으로 모두와 함께 살고 있다. 달라진 눈의 높이는 그 독백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달라진다. 땅에서 조금 멀어지고 하늘에 좀 더 가까워진 시간과 계절 속에서 달라진 언어와 달라진 보폭, 그리고 달라진 눈높이로 '나'를 찾아 나선다.

해발 500m, 사는 것들부터 다르다. 처음 보는 벌레들, 처음 보는 꽃잎들, 처음 보는 산새들…. 처음 보는 것들은 등장 자체가 설법이다. 처음 보는 작은 벌레 한 마리는 새로 배우는 문자이며, 처음 보는 붉은 꽃잎 하나는 처음 보는 길이다. 문자는 늘고 길은 많아진다. 설법이다. 세상이 한 뼘 정도는 넓어진다.

각자의 세상은 각자가 본 것들로만 이뤄져 있다. 각자는 자신이 본 것만을 법(法)으로 삼는다. 보지 못한 것들은 한 뼘도 허락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 둘이 되면서부터 힘겨워진다. 나 밖으로는 한 뼘도 허락하지 않는 각자의 세상 때문이 아닐까.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안목 인연

665년(신라 문무왕 5년)에 혜암 율사가 창건한 천태암은 선종의 중흥조 보조국사 지눌 스님과 인연이 깊다.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서 지눌 스님의 이야기가 가장 깊다. 하지만 지눌 스님을 비추는 사료들에 비해 천태암을 적고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1195년(고려 명종 25년)부터 상무주암에 은거하며 선의 참뜻을 찾아낸 지눌 스님이 구산선문의 하나인 동리산 태안사를 둘러본 후 천태암에 머물렀다. 자연석굴에 16나한을 모시고 법당과 요사를 중창하여 후학들을 맞았다. 지눌 스님은 이곳의 산세가 중국의 4대 불교성지 중 하나로 알려진 아미산과 닮았다하여 아미산 천태암이라고 이름 지었다. 지금의 산신각 왼편으로 30m 정도 산길을 오르면 지눌 스님이 좌선했던 너럭바위가 있다. 지눌 스님의 좌선대다. 현재는 그 자리가 아직 여법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다.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천태암중수화문〉은 천태암에 대해 "16아라한이 상주하고 칠원성군(七元星君 · 북두칠성)이 강림하는 청정한 곳으로 봉우리의 형상이 평지로부터 우뚝 솟아 마치 서천(西天 · 인도)에서 옮겨온 비래산과 같으며 신선경계의 바위와 낭떠러지가 높게 드리워져 마치 동토의 소림굴과 같아 해동의 승지(勝地)이며 호남의 명구(名區)다"고 적고 있다.

800여 년 전 지눌 스님이 송광사에 처음 오셨을 때,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을 지금의 주암면 오산리와 천평리 등으로 이주시키고 우물을 파 그들에게 새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그때 만든 우물은 지금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눌 스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를 받은 주민들과 천태암 16나한들이 지눌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스님이 오가는 길을 편안하게 닦았다. 그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송광사를 오갈 때마다 장삼 소매 속에 흙을 담아 날랐다. 꺼진 곳은 메우고 솟은 곳은 다져 스님이 다니기 편하게 길을 냈다. 길은 모두 일곱 개로 '토성칠교'라고 부른다. 칠석날 토성칠교로 송광사를 다녀오면 모든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665년 혜암 율사 창건
해발 500m 아미산 정상 암자
조계산 모후산 무등산 한 눈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 수행처
모두 주인 되는 무주공산

천태암은 1957년 화재로 도량이 피해를 입었지만 호연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동참으로 2004년에 다시 도량을 회복했다. 3년 전부터 주지로 부임한 대주 스님이 선대의 원력을 이어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스님의 원력은 지금의 천태암이 아니라 1300여 년 전의 천태암에서 시작된다. 이 자리에 부처님의 1300년 세월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주하고 있다. 숨어 있는 사료를 찾고 사료와 사료 사이에서 천태암의 근거와 실재를 찾아내고 있다. 덕분에 천태암의 사료는 점점 늘고 있다.

천태암이 자리한 아미산에는 과거에 18개의 절이 있었다. 하지만 모두 사라졌고 천태암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현재 천태암이 자리한 동네 이름은 목사동(木寺洞)면이다. 나무 '木' 자를 분해하면 '十八'이 된다. 풀어보면 '열여덟 개의 사찰이 있는 동네'라는 뜻에 닿는다. 그리고 산의 이름 아미산은 중국의 명산 아미산의 이름과 닿아 있다. 중국의 아미산 역시 산 자체가 불국토이다. 26개의 절이 있고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사찰이 8곳이나 있는 '불산(佛山)'이다. 그렇듯 곡성 아미산의 이름에는 불국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눌 스님이 천태암을 수행처로 삼아 주석하고, 그 자리를 아미산 천태암이라 부른 것은 응당하고 충분한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천태암의 현존을 아미산이라는 이름에서 바라보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법향으로 가득했던 아미산의 옛 시절이 천태암 편액 하나에 모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서글픈 것이다.

무주공산, 바람도 주인

요사체로 보이는 전각이 하나, 비탈길 위로 큰 법당(극락보전)이 하나, 법당 뒤로 석굴법당(나한전)이 하나, 법당과 산길 사이에 산신각이 하나, 햇살 가득한 곳에 작은 텃밭이 하나 그리고 대중이 하나. 그랬다. 백구 하나가 없다. 천태암은 주지 스님 한 분이 대중의 전부다. 그래서 객이 들면 대번에 표가 난다. 소리 소문 없이 다녀갈 수 없는 곳이다. 아니나 다를까. 도량에 발을 들이기가 무섭게 스님께서 내다본다. 그랬다. 하늘과 좀 더 가까운 땅 천태암에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걸음의 속도와 간격은 나의 것이 아니다. 잠시 모든 것을 접는다. 카메라도 수첩도 그리고 나의 이름 석 자도. 이름과 작은 신분과 산을 찾은 목적을 고했다. '초면'이라는 세속의 방식이 우스워진다. 불연에는 초면이란 없는 것일까. 스님으로부터 받아든 찻잔엔 찻물의 온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 만났을까. 그 아득한 시절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삶의 묘미인 듯하다.

"사진 많이 찍고 계시게, 나 잠깐 아래 내려갔다 올 테니."

해가 많이 기울었을 때였다. 스님은 출타했다. 천태암은 주지 스님이 출타하면 무주공산이다. 달리 말하면 머무는 이가 주인이다. 스님의 차량이 도량에서 멀어지고, 암자는 무주공산이 되었다. 절집에 주인의 이름이 따로 없는 것이 본래 모습일 테지만 무주공산에 홀로 남고 보니 진정으로 '끝'에 서는 느낌이다. 바람도 잠시 주인이 되어 머문다. 서쪽 하늘이 물들어간다. 연등 위로 노을이 다가온다. 천태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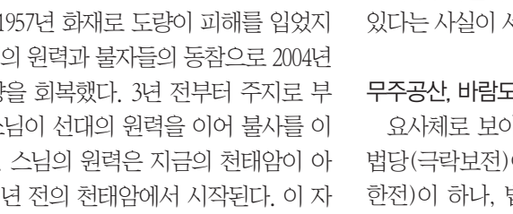
천태암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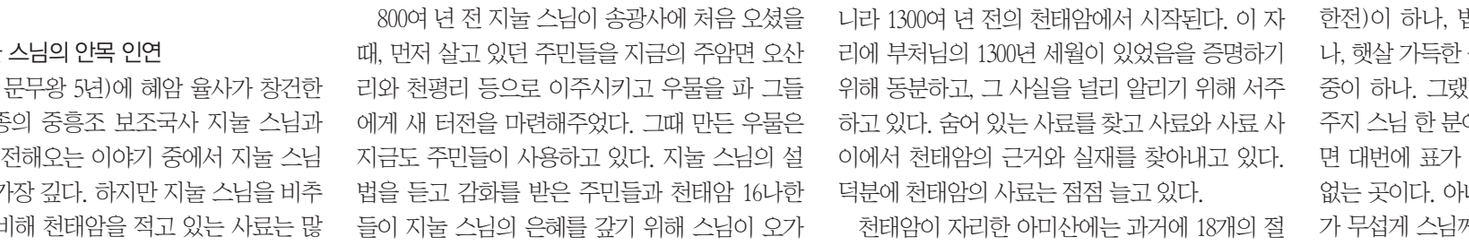
절 입구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 석곡IC에서 지방도와 임도를 이용해 20분 정도 간다. 약 2km의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면 길은 힘들다. 느긋한 마음으로 오르면 하늘과 가까워지는 고도를 느끼면서 오를 수 있다.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벽·시·공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스마일방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23번지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시공 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

순례 예절 준수, 미래 순례자 위한 보시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㉒ 대사당 노숙의 기본 자세



시코쿠 순례자들이 자주 묵는 다케시마 대사당. 최근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예의 없는 순례자들로 인해 무료로 숙박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사당들이 줄어들고 있다.

다케시마 대사당서 만난 할머니
"예불은 가능하냐" 물어본 이유
예절 없는 순례자 선별하기 위해

술 먹고 고성방가 등 폐해 심각
무료 대사당 폐쇄로 순례자 피해
최소한 예의를 보여야 공생 가능



제38번 사찰인 콘고후쿠지를 향해 걷는 순례자의 모습.

아직 밖이 어슴푸레 한데 난데없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를 조금 넘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살짝 여니 할머니 한 분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있다.

"오늘은 순례자님이 묵으셨구만!" 시만토 강을 바라보고 서있는 다케시마 대사당(竹島 大師堂)은 도보순례자들에겐 유명한 숙박 포인트다. 지역에선 오랫동안 주민들이 신행활동의 중심으로 삼아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관리인을 자처하는 할머니는 대사당에서 묵는 순례자들이 익숙한 듯 거리낌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다. 조금 어안이 벙벙해 있으려니, 할머니는 나에겐 눈길도 주지 않고 장바구니에서 꽃과 과일을 꺼내 불단에 공양을 올리고 합장을 했다. 그제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건다.

"순례자님, 혹시 불경 외울 줄 알아요?" 묘하게 말에 가시가 박혀있다. 뭔가 시험을 당하는 듯 한 기분이 들어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았다.

"예, 압니다. 같이 예불 모시겠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조금 움직여 옆 자리를 내어 주셨다. 불단에 초와 향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마침 실내이고 하니 먼저 삼배를 올린 후, 좌종을 한 번 치고선 항상 88개소에서 하던 것처럼 예불을 모셨다. 회향문까지 모두 독송하고선 할머니께 합장을 하고 인사를 올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이렇게 예불을 모시나 봅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저 향 올리고 꽃이나 바꿉니다."

"그것도 큰일이지요. 덕분에 이렇게 대사당이 깨끗한 걸요."

"아침부터 대사님이 칭찬해 주시니,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할머니는 '순례자(오헨로상)'이 아닌 '대사님(오다이시상)'이라고 나를 부르며, 방금 전까지 가시 박힌 말투로 나에게 말을 건 이유를 들려줬다. 시코쿠의 노인들은 순례자가 곧 코보대사의 화신이라고 믿어 종종 순례자를 공손히 부를 때 '대사님'이라고 부르곤 한다.

"요즘 대사님처럼, 제대로 순례하는 이들이 드물어요. 언제부턴가 대사당이 무료 숙소처럼 소문이 나서 며칠을 죽치고 앉아있거나 부처님이 계시든 말든 술을 잔뜩 마시곤 난동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덴 이렇게 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경도 못 외우면서 법당에서 자느냐고 쫓아내지요!"

순례를 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시코쿠 주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어 순례자 행색을 한 무전여행자나 노숙인들, 혹은 예의 없는 순례자들로 인해 순례자들에게 열려있던 작은 불당들이나, 무료 숙소들이 상당수 폐쇄됐다. 어느 불당은 본존으로 모시던 불상이 순례자로 가장한 도둑에게 도난당해 순례자들은 물론이요, 그냥 참배하러 가는 것도 막힌 곳이 있다고 들은 적 있다.

할머니는 불단에서 퇴공한 과일과 음료수를 오셋타이라며 보시하시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갔다. 아침 해가 눈부시게 빛나는 가운데 순례가 다시 시작됐다. 38번 콘고후쿠지(金剛福寺)까지는 약 40km, 꼬박 하루를 부지런히 걸어가도 사찰이 열려있는 시간에 도착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거리다.

곧장 시만토강을 건너 38번을 향할까 하다가, 여유롭게 걷기로 하고 잠시 딴 길로 샌다. 길을 거슬러 40분정도를 걸어 고츠카 대사당(古津賀大師堂)을 향한다. 전날 치카 씨의 카페에서 꽤 오랜 시간을 죽치고 있었던 터라 참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트막한 동산에 감춰진 고츠카 대사당은 다케시마 대사당처럼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불당 중 하나다. 다만 다케시마 대사당과는 달리 전기나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고, 편의점도 근처에 없단 이유로 꽤나 외면 받고 있다.

2011년 첫 순례 때 이곳에 묵기위해 나를 포함 세 사람의 순례자들이 이곳에 갔을 땐 이미 초로의 순례자가 짐을 풀어 두었다. 세 사람이 겨우 잘 수 있는 고츠카 대사당보다 조금 더 내려간 다케시마 대사당을 권한 그는 한국 개량한복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곤 말을 걸었다.

"자네 행색을 보니, 중인가?" 그 순례자는 알고 보니 시코쿠 순례를 수행으로 서원해 12년째 걷고 있던 스님이셨다. 한국에서 왔고, 출가자는 아니지만 불교를 공부하고 있단 간단한 내 소개를 들은 스님은 단박에 이렇게 입을 열었다.

"한국이라, 그렇다면 자네 눈엔 일본 중은 중 같지가 않겠구만?" 뜻밖의 물음에 잠시 당황해 있으려니 스님이 말을 이었다.

"일본 중들은 술은 기본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육식에, 여자까지 안아서 아들한테 절을 물려주지. 그래도 한국은 청정히 계를 지키니, 그런 만행은 없지 않은가."

스님은 속세에서 일본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부인이 죽고서야 삶이 무상하단걸 깨닫고는 그길로 퇴사하여 출가했다고 이야기했다. 스님은 "젊은이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드물다 열심히 정진하라"라고 말하고는 모든 정진의 근본은 지계에 있음을 역설했다. 자리를 떠나기 직전 스님은 내 염주를 가지(加持)해 주셨다. 그때 염주를 이리저리 묶어 기묘한 매듭으로 만들어 돌려주시면서 염주금강저라고 말해주셨다.

"내가 학인 시절에 우리 은사께 배운 것이지. 요즘 젊은 스님들은 잘 모르는 거라네. 순례하는 동안 조심하게나."

만약 그날 같이 걷기로 한 일행들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불편해도 그곳에서 스님과 좀 더 이야길 나누고 싶었는데 여의치 못했다. 그런 추억이 깃든 대사당이니 그 어떤 절들을 순례할 때보다 찾아가는 길이 기대됐다.

고츠카 대사당은 전날 아무도 묵지 않았는지 적막감이 감돌았다. 대사당 안의 노트에는 3일전에 누군가가 묵었다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불단에 향을 하나 올리고 합장했다. 잠시 그때 스님이 역설했던 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곱씹어 본다. 향이 삼분의 일쯤 타들어 갔을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38번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다.

시만토 강을 건너는 시만토 대교를 건너면 본격적으로 38번으로 향하는 기분이 든다. 다리를 건너고선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다. 특히 어제까지 북적이는 인파나, 교통량이 많은 길 옆을 지나다가 한적한 길을 만나니 더욱 적적한 느낌이 든다. 민가나 가게가 드문드문 있지만 인기척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길이다.

그럼에도 38번을 향하는 길가로 간간히 떠들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해수욕장이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길가에 보이는 가게나 숙박업소들에도 이를 광고하는 간판들이 제법 보인다.

이 해수욕장들은 시코쿠 순례를 홍보하는 화보에도 자주 등장한다. 푸른 바다 옆으로 펼쳐진 모래사장을 걷는 흰옷의 순례자는 제법 멋있는 그림이다. 나도 그 그림에 혹해 따라해 보자고 해수욕장을 따라 조금 걷다가, 모래의 복사열에 기겁을 하곤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온 기억이 있다.

순례길은 321번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가는 외길이다. 그래서 길을 걷다보면 순례자들과 많이 마주치게 된다. 이런 외길에서는 인연이 됐던 순례자들을 종종 만나는 경우가 많다.

시만토 대교에서 11km 정도 걸어온 곳에 이는 편의점 앞에 잠깐 배낭을 내리고 쉬려니 편의점에서 한 쌍의 순례자가 나온다. 무심코 봤다가 서로 반색을 하며 웃었다. 36번 근처의 국민숙사에서 같은 묵었던 히로시마 부부였다.

"어머 박상!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정말 인연입니다. 어제는 어디서 묵으셨어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순례자씨! 또 보내요!"

이번에는 누구인가 하고 돌아보니, 아주 점입가경이다. 일전에 자동차 오셋타이를 권한 할아버지였다.

"네, 이번만큼은 못 봐줍니다. 38번까지 태워드릴 테니 타시죠!"

자동차 오셋타이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 거절했던 전적이 있어 다시 거절하는 것은 큰 실례가 된다. 그래도 조금 망설이고 있으려니 아예 내 배낭을 들어서 차로 앞장서신다. 오늘은 결국 이 보시를 받아야 하는 날인가 보다.

〈자유기고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5~6/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꽃에 향기를 더하다(육조 혜능, 천로 야부 금강경 해설)	원정스님/정안스님	조계종출판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미네소타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홍창성	불광출판사
3	나는 중이 아니야	진광스님	불교신문사	8	진리란 무엇인가?	혜담스님	민족사
4	정선 디가 니까야	이중표	불광출판사	9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승가대학	민족사
5	마하시 사야도의 담마짝까 법문(초전법륜경)	마하시 사야도/일창스님	불방일	10	답은 나에게 있어(부처와 돼지 1)	고이즈미 요시히로/김지룡	들녘

선의 관점서 불교 진리를 밝히다



진리란 무엇인가?

혜담 스님 지음/민족사 펴냄/13,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 책은 교리가 아닌 선의 입장에서 고따마 붓다와 부처님과 선불교 전체를 총망라해 불교의 진리를 설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선(禪)의 관점서 본 '불교의 진리관을 담은 책' 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불교의 진리라고 하면 삼법인, 사성제, 십이연기 등 불교 교리를 연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불광사 혜담 스님은 철학과 종교의 문턱을 넘나들며, 교리(敎理)가 아닌 선(禪)의 관점서 진리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 대중들이 알기 쉽게 진리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불교와 이웃종교의 대화의 접점을 선(禪)에서 찾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즈음 선은 종교를 초월해 진리를 찾는 보편적 수행 체계로 각광 받는 상황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진리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립이 절실한 상황서 선어록과 대소승 경전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리란 무엇인가?' 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삶의 참된 이치에서 나아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인 혜담 스님은 출간 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인간 삶의 의미를 찾는 종교가 불교이고, 불교가 발견한 삶의 의미를 체득하기 위해서 부처를 찾는 행위를 선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소납도 한 30여 년 전에 해오의 상사각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착각해 기고만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도리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 것이 아니라는 생각서 허물인 줄 알면서도 사족을 붙여보게 된 것입니다."

혜담 스님은 광덕 스님(불광사 불광법회 법주)의 제자로서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해 오래도록 '공사상(空思想)' '반야사상' 을 연구해 왔다. 귀국 후에는 수십 년 동안 선수행을 하는 한편 도심포교 도량으로 유명한 불광사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지도해 온 이사(理事)를 겸비한 분이다. 혜담 스님은 이 책을 집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광덕 스님이라고 밝힌다.

광덕 스님의 영향을 받고 반야공사상과 선수행에 천착한 혜담 스님은 모든 사람이 뿌리로 들어가면 진리 본성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역설한다.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 이라는 부제서 엿볼 수 있듯 불교 교리로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선의 관점에서 불교 진리를 설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1장과 2장에서는 진리 자체인 붓다와 마음에 대해 선적인 관점에서 참된 불교의 진리를 보여주고, 3장에서는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의 동력(動力)이 지혜에서 나온 대자비임을 강조하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혜 자비의 실천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불교 교리적인 해설 없이 오직 붓다와 마음, 진리의 실현에 대해 당송 시대 조사, 선지식들과 선승들이 남긴 선어록과 화두, 공안을 불교의 진리와 일치시켜서 설명, 독자들로 하여금 선수행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이 책의 1장은 붓다의 장이다. 첫머리에 '불교라는 방편' 이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끈다. 이웃종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불교는 진리를 뗏목에 비유하면서 진리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불교라는 방편' 이라는 말이 불자들에게는 낯설지는 않다. 그래도 불교 교리, 신앙형태, 수행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 불교의 참다운 가르침, 불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방편이라는 말도 가지각색으로 받아들인다. 혜담 스님이 방편에 대해 먼저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혜담 스님은 〈대지도론〉에 의거해 방편을 대지방편(모든 법이 공한 것을 아는 지혜 방편)과 대비방편(대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방편)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도 대지(大智)에 의해 모든 중생이 같은 생명임이 체득했을 때 대비심은 자연히 일어나게 된다면서 두 가지가 나뉠 수 없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한편 대지방편의 입장에서 부처와 불교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진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불교가 발견한 삶의 의미를 체득키 위해 부처 찾는 행위를 선수행이라고 말하는 저자 혜담 스님.

책 집필 원동력은 광덕 스님 말씀
진리 자체인 '부처'를 찾는 선수행
진리 실현, 불교 수행 궁극적 목적

"운문 선사가 부처라 대답한 '똥 젓는 막대기' 에는 인간은 본래 죄가 없다는 인간 무죄의 선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 성품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처를 찾는 행위인 선수행의 이론과 실천 방법을 설명하는 벽암록, 무문관 등 여러 선어록에서 법안종을 창시한 법안 선사, 조동종을 창시한 동산 화상, 운문종을 창시한 운문 선사, 조사선을 확립한 마조 선사 등의 일화를 가려 뽑고 그 안에 깃든 불교의 진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혜담 스님이 이 책서 초지일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뿌리로 들어가면 진리본성뿐이라는 것이다. 신을 믿는 종교와 불교의 가장 다른 점은 인간관, 진리관인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인간이 똑같은 불성, 참 성품을 가진 존재임을 역설한다.

한편 위와 같은 경전 내용을 언급, 일체 존재와 현상이 공하다는 것을 책상의 예를 통해 "책상은 많은 부분이 모여서 된 복합적인 것으로 결코 실체가 있는 단일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깨달음은 공의 체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밝힌다. 깨달음과 반야바라밀 그리고 공(空)사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간화선 수행은 반야바라밀을 증득하는 과정임을 거듭 강조한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고, 심즉시불(心卽是佛),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한다. 혜담 스님은 이 책의 2장서 붓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반야를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선불교의 입각처라는 것을 천명한다. 조사스님들이 남긴 선어록의 화두를 스님 나름의 안목으로 읽어내고, 선수행을 하면서 일체유심조의 마음이 불성(佛性)이고, 반야바라밀이 바로 공(空)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혜담 스님은 "일체유심조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행하다보면 어느 날에 분명히 그대 앞에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대에게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苦海)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불자로서의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라고 역설한다.

"대비(大悲)는 대지(大智)로부터 나오고 대지는 대비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래 하나의 물건입니다만, 분별지의 입장에서 말할 때 두 개의 물건으로 있는 것처럼 나누는 것입니다." 불교를 떠받치는 큰 기둥은 반야와 대비이다. 특히 혜담 스님은 진리의 세계인 법계(法界)는 대비(大悲)를 동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한다. 스님은 진리의 실현, 즉 대자대비를 실천할 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극락정토라는 것을 거듭 밝힌다.

"어떤 종교에서는 창조주인 신(神)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불교의 입장도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연스런 대비심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이 자신과 같은 몸(同一生命)임을 본성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님은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같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서인지 이 책서 이웃종교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간혹 보인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기 위해서, 더 나아가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부처들을 위해 대자대비행을 실천하는 삶이 진리의 실현임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이 책은 '진리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의문을 품은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한편 진리, 삶,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혜 자비의 실천에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지난 10년 동안 불교 인구가 300만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지금 이 자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혜담 스님은?

1949년 경남 울산서 태어난 혜담 스님은 부산 금정산 범어사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했고,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서 〈대품반야경에 있어서의 반야바라밀 연구〉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선우도량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 재심호계위원, 불교신문 논설위원, 불광사 주지를 역임한 그는 현재 경기도 검단산 각화사 주지,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를 맡고 있다. 역저서로는 〈반야경의 신앙〉 〈대품반야바라밀경 상 · 하〉 〈반야불교신행론〉 〈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어록 강설〉 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불교 전래 초기부터 중국의 역경사들은 'Buddha'라는 단어를 깨달음(覺) 또는 깨닫는 것, 깨달은 사람(覺者)이라는 세 가지 의미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초기불교의 연구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적합한 번역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Buddha'라는 말에는 깨달음 · 깨닫는 것 · 깨달은 사람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p.23)

▲인간은 의식 속에서 갖가지 분별을 합니다만, 이것은 실은 어느 것이건 절대 무분별 혹은 절대 무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보고 바로 깨닫는 것(直覺)입니다. 무분별의 경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체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p.159)

▲업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타당합니다. 다른 유정(有情) · 비정(非情)에게는 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악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략) 자기로부터 움직여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도덕적 평가를 가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업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업 그 자체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p.180~181)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흑백사진으로 만나는 마곡사의 옛날

국립공주박물관 '마곡사, 어제와 오늘' 展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특별전
6월 4일~7월 10일 공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20여 점


마곡사 해탈문


마곡사 대광보전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곡사, 어제와 오늘' 전을 개최한다.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에 유리건판으로 촬영한 마곡사의 흑백사진 20여 점과 서양화, 한국화, 도자기, 로고, 캐릭터, 조각, 옻칠 등 지역작가의 작품 40여 점을 함께 전시한다.

지나간 시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존의 근거들이다. 그 근거들을 확인하는 일은 현존의 의미와 동기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소소하면서도 풍요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전시는 그렇게 소소하면서도 풍요로운 전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존재이지만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흑백의 사진들은 '흑백'이라는 형식만으로도 그 근거의 깊이를 더한다.

해탈문 앞에 선 대중의 모습 속엔 흑백으로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당시의 시대적 그늘과 당시 복식의 추억이 보인다. 오층석탑과 대광보전을 보여주는 사진은 사진 자체는 오래되어 바랬지만 오히려 사진 속엔 오늘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선명함이 담겨 있다. 오층석탑과 대광보전 뒤로 대웅보전이 보인다. 겨울 풍경 속에서 고즈넉하게 법향을 뿜어내고 있는 가람의 정취가 한 폭의 수묵으로 다가온다. 얼룩이 지워버린 낡은 사진 속의 영산전, 그 시절은 그 이전의 세월로부터 낡았겠지만 한 장의 사진에 담겨 또 한 번 낡아버린 영산전의 모습은 깊은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오층석탑 앞으로 펼쳐진 젖은 마당은 보는 내내 종잡을 수 없는 시간여행을 선사한다. 마곡사의 추억들이다.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에 위치한 마곡사는 충남 불교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로 640년(백제 무왕 41년) 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1172년(고려 명종)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중수하고 범일 대사가 중건했다. 도선국사가 중수하고 각순 대사가 보수한 것으로 전해온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세조가 '영산전' 사액을 내렸다.

창건 당시 30여 칸의 대찰이었으며, 근대기에는 '남방화소(南方畫所)'로 불릴 만큼 많은 화승을 배출했다. 마곡천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대광보전(보물 제802호), 대웅보전(보물 제801호), 오층석탑(보물 제799호) 등이 있고, 남쪽으로 영산전(보물 제800호), 홍성루와 해탈문, 천왕문 등이 있다. 영산전, 해탈문 등 남쪽 영역은 마곡사 창건 당시 중심 영역이었으며, 사찰을 확장하면서 북쪽 영역으로 새로운 불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이밖에도 괘불 1폭, 목패, 세조의 연(輦), 청동향로(지방유형문화재 제20호)가 있으며 감지금니묘법연화경(紺紙金泥妙法蓮華經) 제6권(보물 제270호)과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제1권(보물 제269호) 등이 보존되어 있다.

마곡사를 비롯한 한국의 산사는 7~9세기에 창건된 후 수행과 신앙, 생활의 기능을 유지한 종합 승원이라는 점에서 세계유산 필수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 계획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처럼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이 담긴 마곡사는 2018년 6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041)850-6300.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

6월 21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서

문화포교의 으뜸사찰로 불리는 봉화 청량사의 둥근소리 합창단이 6월 21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둥근소리 합창단과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 청량사 어린이 밴드(2기)와 퀸스틀러(성악 앙상블)가 풍성하고 화려한 선율로 알찬 문화마당을 펼친다.

△1부에서는 청량사 둥근소리 합창단이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From The New World(Pops-arrange by MRA)',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조용극 작사 변규백 작곡)', '우리도 부처님같이(맹석분 작사 이달청 작곡)', '연꽃 피어오리리(덕신 스님 작사 김회경 작곡)', '좋은 인연(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작곡)'을 합창하고, 청량사 어린이 밴드(2기-싱어 / 서규빈 최나원, 드럼 / 정세빈, 기타 / 최민석, 건반 / 박시은 김주연)가 '오늘은 좋은 날(이종만 황학현 작사 이종만 작곡)', '여행(안지영 작사 안지영 바닐라맨 작곡)'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합창단의 '마하반야바라밀(함현 스님 작사 김대성 작곡)', '바라밀(황학현 작사 이종만 작곡)', '사노라면(길옥윤 작사 · 곡)'이 이어지고, 초청공연으로 퀸스틀러의 '아주특별한 선물(퀸스틀러 작사 · 곡)', '바람의 노래(조용필 작사 · 곡)', '밥만 잘 먹더라(옴므 작사 · 곡)'이 이어진다.

△3부에서는 'ABBA on Broadway (arranged by Michael Brown)', '너와나(이종만 작사 · 곡)', '바램(solo, 전병희-김종황 작사 · 곡)', '아모르파티(이건우 작사 윤일상 작곡)', '아리랑(with 청량사 어린이회 · 우효원 편곡)'이 이어진다. 다함께 부르는 '사랑으로(이주호 작사 · 곡)'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둥근소리 합창단은 봉화 등 광범위한 지역의 청량사 신도들의 신심과 어린이회, 학생회 등의 자부모들, 그리고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불자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매년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이어가고 있다. (054)672-1446. 박재완 기자


둥근소리 합창단 공연 모습.

신윤자 초대전 '맑은 연꽃' 전

6월 1~30일 갤러리 까루나 1층

비로자나국제선원 내 갤러리 까루나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층에서 신윤자의 '맑은 연꽃' 초대전을 개최한다.

신 화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는 '응시2', '궁남지의 청정', '무념무상', '회향', '궁남지의 오후', '연꽃 피는 아침' 등 신 화가의 작품 20여 점이 선보인다.

노방 천, 종이에 수묵채색, 자연염료로는 취자, 소목, 오리나무 열매 등을 작품재료로 활용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연꽃이 상징하는 맑은 마음과 정진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 한다. 점점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작품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인 불성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다.

신 화가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전체 작품을 5분만 허허로이 바라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 맑은 연꽃이 주는 의미와 부처님의 말씀이 한 자 한 자 각자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고 말한다. 그리고 작품과 대화를 하라고 말한다. 어느새 연꽃에 스미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신윤자 화가는 인천 용화선원 문화센타에서 수묵산수화를 10여 년 수업했다. 미술대전 한국화부문 최고상 수상 외 다수 수상했다. 여러 단체에 초대작가,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미추홀구 미술협회 부회장, 초대작가회 한국화분과 재무이사, 그 외 실경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02)6012-1731.

박재완 기자


신윤자 作 '궁남지의 오후'.





“김천 수도암비, 신라 명필 김생 작품”

박홍국 관장, 2차 비문 판독서 ‘김생서’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김천 청암사 수도암의 ‘도선국사비’가 신라 명필 김생이 원화3년(서기 808년)에 썼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불교고고학자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장은 “김천 수도암비를 조사한 결과 기존에 읽은 22자 외에 김생서(金生書) · 원화삼년(元和三年) ·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등 21자를 더 판독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조사에는 박방룡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이영호 경북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은 수도암 약광전 앞에 있으며, 크기는 높이 177㎝ · 너비 60~61㎝ · 두께 42~44㎝다. 일제강점기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창주도선국사’라는 글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본래 세로 길이 4~5.5㎝인 글자를 8행에 26자씩 새겼다.

박 관장은 “비석 끝부분 8행에서 흐릿하지만 조금 작게 새긴 ‘김생서’ 세 자를 찾았다”며 “ ‘원화삼년’이라는 연호는 6행 중간에 있었다. 후대에 판 도(道)자에 의해 원(元)자가 가로로 절단됐으나 일부획이 남아 판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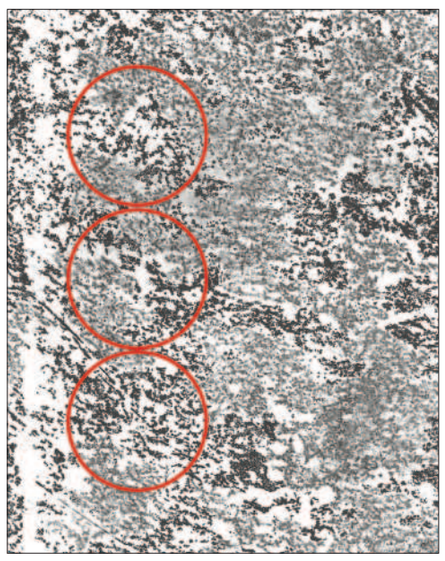
이어 “비석 조성의 목적은 박방룡 원장이 ‘비로자나불’을 판독해 가능했다”며 “수도암비는 신라 말기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307호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연대를 알려주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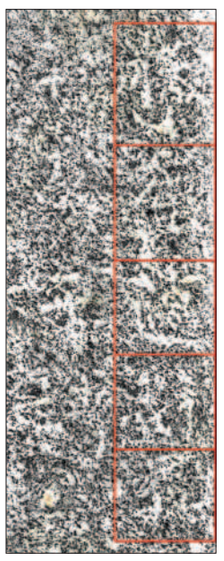
그러면서 박 관장은 수도암비를 ‘김생서 수도암 비로자나불 조성비’로 부를 것을 제안하며 “앞으로 불교 용어와 고

‘비로자나불’ 등 21자 추가로
수도암 비로자나불 연대 확인
비문도 불상 조성 관련일 듯
“김생 생몰연대 수정도 필요”



김천 청암사 수도암의 도선국사비. 비문 판독 결과 신라 명필 김생의 글씨임이 확인됐다. 제공= 오세윤 작가





탁본 조사를 통해 수도암 비문에서 김생서(金生書) · 원화삼년(元和三年) ·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등 21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 왼쪽 붉은 선 부분이 ‘김생서’로 판독된 모습. 사진 오른쪽의 붉은 선 부분이 ‘비로자나불’로 판독된 것이다.

자(古字)에 밝은 연구자들이 모여 판독하면 15~25글자를 더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박 관장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김생의 생몰연대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삼국사기〉에 따르면 김생은 경운 2년(711)년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고, 예서와 행서가 모두 입신(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 숭녕 연간에 고려 사신이 김생의 행초를 송나라 관리에게 보여줬더니 중국 최고 명필인 왕희지(王羲之)의 작품으로 오인했다는 일화도 있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김생의 출생년도는 711년으로 수도암 제작 시기인 808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라의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김생이 활발하게 활동했을 시기로 추정되는 741~791년 사이 그의 진적 비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관장은 “〈삼국사기〉 열전 중 출생연도가 확인되는 사람은 김유신과 김생뿐”이라며 “김부식과 편찬학자들이 김생 출생 연도의 전거로 삼았던 원전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문의 필체를 근거로 김천 갈항사지 동탑 상층 기단 명문, 산청 단속사 신행선사비 글씨도 김생 친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교수는 “이제 김생 글씨는 집자비인 태자사비가 아니라 김생 진적이 확실시되는 수도암비를 기준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수도암비 보존 방안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단은 수도암비 추가 판독 결과를 정리한 연구 논문을 신라사학회가 펴내는 학술지 〈신라사학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대웅전 기둥 아래서 옛 ‘곡자’ 발견

안성 청룡사 보수 중 확인
대웅전 기본 길이와 일치
전통건축 연구 중요 자료

보물 제824호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 보수 과정에서 오래 전 사용됐던 목재 곡자가 발견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안성 청룡사 해체 보수 과정에서 최근 ‘목재 곡자’가 발견됐다”고 6월 5일 밝혔다.

목재 곡자는 ‘ㄱ’자 형태의 자로, 장변 43㎝ · 단변 31.3㎝ · 두께 2㎝의 크기다. 곡자는 전통건축에 쓰인 목재와 석재 길이를 측정하거나, 집 전체의 크기와 비례, 치목(治木, 나무를 깎는 일)과 치석(治石, 돌 다듬는 일)에 필요한 기준선을 부여할 때 사용한다.

발견된 곡자는 목조건축물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인 대웅전 뒤쪽 기둥 하부와 초석 사이에서 나왔다. 대웅전 상량문 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1863년(철종 14년) 대웅전 수리공사 당시 기둥의 해체보수 작업 과정에서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목재 곡자의 모습.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 보수 중 발견됐다.

발견된 곡자는 단변을 10치로 나누어 세부 단위를 ‘일(一)’부터 ‘십(十)’까지 표기하였다. 특히, ‘일(一)’에서 ‘삼(三)’까지는 다시 한 치당 10등분을 해 측정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용척에 대해 1차 분석한 결과, 한 자가 313㎜ 내외로, 대웅전의 용척과 정확히 일치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곡자는 후대 사람들이 건물을 보수할 때 사용된 치수 단위를 알 수 있도록 한 옛 목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313㎜ 기준은 조선 세종대 도량형 통일(1446년)에 따른 영조척과 거의 유사하며, 18세기 후대까지 사용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곡자는 당대에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 사용한 척도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목재 곡자는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한 보존 처리가 진행됐으며, 정밀한 연구를 위해 파주 전통건축부재센터로 이관한 상태다. 향후 △정밀실측 조사 △재료(수종) 분석 △엑스레이(X-ray) 촬영 △CT(컴퓨터단층) 촬영 등을 추가로 진행해 전통건축 분야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안성 청룡사 대웅전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전체 변형이 심해 해체 ·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016년 6월부터 해체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희소 묘법연화경 등 울산시 문화재 된다

울산시 5일 지정예고… 청룡암 소장 경전

조계종 청룡암 소장 조선시대 경전들이 시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조계종 청룡암(주지 종선)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으로 표제(標題)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다. 권말 기록을 통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음이 확인됐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만 소장돼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인출 및 보관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됐지만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가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 자료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보광사 성보문화재 모든 것을 망라하다

주목! 학술서

〈속초 보광사의 문화유산〉

속초 대표 사찰 보광사 소재 성보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술서가 발간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고양 원각사 주지),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등은 지난달 고성 화재 속에서도 성보문화재를 지킨 속초 보광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들을 연구해 책으로 묶었다.

보광사는 영랑호 인근에 위치한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의 말사다. 1623년 광명당 등휘가 안양암을 창건한 후 폭우로 유실되자, 속초의 옛 절터로 이건해 보광사로 사명을 개칭했다.

〈속초 보광사의 문화유산〉은 총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보광사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담았다.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조각한 조각승 초안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재질과 연륜연대분석 △복장 전적 △복장 직물 △해당 시대의 정토 · 지장신앙 △보살상 발원자 연구 등이 다뤄지고 있다. 특히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발원자로 확인된 한씨 부인이 남편 승록대부 나업의 명복을 기원하며 보살상을 조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승록대부 나업은 왕의 시중을 들었던 내관이었고 그가 죽자 부인 한씨가 남편을 기리며 불상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발원자를 연구한 권순삼 은평향토사학회 연구위원은 “내관은 왕의 최측근 세력으로서 궁궐문화를 전수 · 보존하고 왕도정치 구현에 일조했던 전문직업인”이라며 “전문직업인의 면모를 조선시대 내관에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일”이라고 강조했다.

2장은 보광사의 문화유산 전반을 다뤘다. 3장은 보광사에 남아 있는 문헌과 불상 발원문 및 화기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長壽漢醫院印 장수한의원
원장 이영수
▣ 진료과목 : 침구과, 내과·소아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 특수치료 : 약침요법
▣ 점심시간 : 오후1시~오후2시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 30분 ~ 오후6시 30분)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7시)
토요일 (오전10시 ~ 오후2시)
일요일·공휴일 휴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48번지
(본오동 872-19)한양프라자 사거리(GS25시 건물2층)
TEL. 031)409-0541~2

전통예술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양지국악사는 모든 악기를 자체 제작 합니다.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박재완의 PhotoEssay



유월 산중

산새의 지저귐만 듣고 살면
언젠가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까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쯤
새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개울의 물소리만 듣고 살면
너의 마음속을 물처럼 흘러갈 수 있을까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쯤
너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꽃만 보고 살면
눈에서, 손과 발에서 향기가 날까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 쯤
꽃처럼 한 빛깔로 살 수 있을까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㉞ 상좌 현도스님(경주 자비사 주지)

사제지간 만남, 삶의 큰 신비이자 기적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끌어 줄 누군가를 만난다. 때로는 스승이 되어 우리를 안내하고 도움을 준다. 제자를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여정서 사제지간의 만남은 삶의 가장 큰 신비이자 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현도 스님과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은 것은 분명 축복이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출어람 이청어람' 이라는 말이나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는 제자는 스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말이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병환까지 깊은 나를 곁에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는 제자 현도 스님을 마주대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적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현도 스님과 나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잘아는 재가법사로부터 경주서 소개를 받았다. 사제지간의 인연이 닿을려고 했는지, 현도 스님을 보자마자 당장 상좌를 삼고 싶었다. 시원스런 이목구비에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겸손한 몸가짐과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이끌어주면 앞으로 큰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내가 제자 삼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한 지 한달쯤 지났을 때 현도 스님에게 수락의 연락이 왔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현도 스님은 그날 이후 내가 예전에 마련해 놓은 경주 터에 가건물로 법당을 짓고 수행과 포교를 시작했다. 돌이켜 보니 정말 나는 부끄럽게도 현도 스님에게 가사장삼 하나 해준적이 없는 몰인정한 스승이었다. 그러나 현도 스님은 사제지간의 인연 이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스승 봉양에 최선을 다한다.

건강했던 젊은 시절, 나는 마음 먹은 일은 많은 이들이 허황되다 느낄지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한마디로 '불도저' 스타일이었다. 지금부터 9년전으로 기억된다. 육탄10용사 동상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을 위해 신명나게 천도재를 지내고 싶어졌다. 1945년 5월 3일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활약한 육탄10용사의 공적을 기리는 동상이었다. 당시 북한은 전쟁 준비를 완료한 후 1949년 5월 3일 새벽 한국군의 전투력을 시험하기 위해 개성의 송악산을 기습침공 하였다. 제 1사단의 서부덕 상사 등 10명의 특공대는 이를 탈환하기 위해 육탄으로 적진에 돌진해 빼앗긴 고지를 되찾았다. 이때 산화한 10용사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부조(浮彫)이다. 당시 나에게는 마음만 있었지 행사를 치룰 돈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현도 스님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 자리서 선뜻 5백만원을 내놓았다. 자신도 토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을 때여서, 그 보시금은 더없이 소중했다. 스승이 하는 일에 대해선 깊은 신뢰를 갖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후원만 했다. 너무 고마웠다. 현도 스님의 후원으로 행사를 여법하게 치룰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부산 UN공원묘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이들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을때도 마찬가지로 큰 후원을 해줬다. 자신도 어려울텐데 내가 건강이 악화돼 투석을 시작하게 됐을때 역시 거액의 병원비를 보내왔다.



육탄10용사 천도재서 추모 의식을 함께하는 스승과 제자. 사진 왼쪽은 삼중 스님, 오른쪽은 제자 현도 스님.

스승 하는 일이면 물심양면 후원
지극한 스승 봉양 정성에 큰 감동
하심과 겸손을 몸소 실천한 제자

단순히 돈만 후원했다면 제자로서 고마운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리 큰 감동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도 스님의 행을 보면 아마 내가 친자식이 있었더라도 저렇게 극진히 대접받지는 못했을 거란 확신이 들 정도로 정말 나한테 지극정성을 다한다.

아침 저녁 하루에 두 번씩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절서 20분 거리의 내 토굴로 찾아와 꼬박 문안 인사를 한다. 1주일에 세 번 경주 시내로 투석 받으러 갈때에도 내 토굴앞에서 기다렸다가, 병원 갔다온 나를 부축이며 반갑게 맞아 주기도 한다.

제일 크게 내가 현도 스님에게 감동 한 것은 4년전 불교TV 촬영팀과 나의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이다. 열흘을 처음으로 함께 있었는데, 보통은 스승과 불편해서 별도로 방을 쓰려고 할텐데, 현도 스님은 몸이 불편한 나를 시봉하기 위해 오히려 함께 잤다.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하면 어느새인가 잠에서 깨서 나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일본 병원으로 투석을 가면, 호텔 문앞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전전긍긍하며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을 모시는 마음이 이렇게 지극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 극진과 하심은 신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절안에 있다가도 차 소리가 밖에서 나면 쫓아나가 환한 미소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90도로 인사하며 신도들을 반갑게 맞는다. 하루 몇시간이 걸리든지 매일 수행이라 생각하고 신도들을 위해 축원 기도를 올린다. 자식없고 오갈데 없는 불쌍한 공양주 할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5년째 후원하고 있다. 이런 선행들이 동네에도 입소문으로 알려져 궂은 일이 생기면 종교를 초월해 현도 스님을 찾는다. 스승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제자를 보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즐겁고 신난다. 현도 스님이 있어서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하고 즐겁다. 나에게 과분한 사랑과 대접을 해준 상좌 현도 스님, "스승으로서 해준 것이 없어 면목은 없지만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감사 인사를 지면을 통해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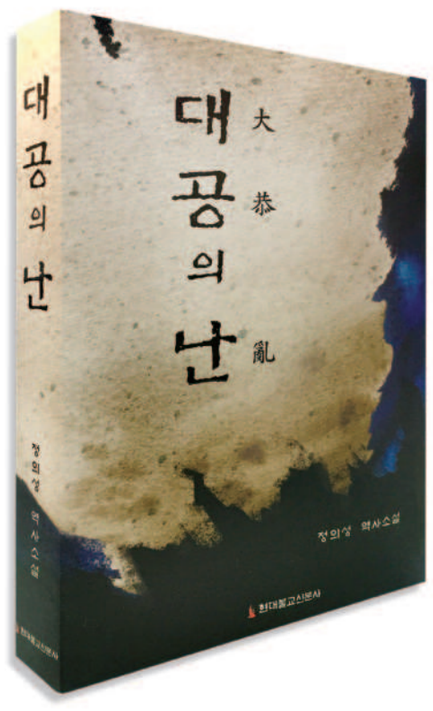
정리=김주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